




Sold exclusively in Louis Vuitton stores. Tel. 02 3432 1854

 루이 비통 패스 (Louis Vuitton pass) 앱을 다운로드하면 더욱 특별한 콘텐츠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LOUIS VUITTON

Style

조선일보

JUNE 2014
vol.110



TIFFANY & Co.

NEW YORK SINCE 1837



Breguet
Depuis 1775



Breguet, the innovator.
Marine GMT with second time-zone

Having become a member of the Board of Longitude in Paris in 1814, Abraham-Louis Breguet was appointed Horologer to the French Royal Navy by Louis XVIII the following year. This prestigious title is now perpetuated in the Marine GMT 5857 model with second time-zone. While two central hands indicate local time, the off-centred chapter ring complemented by a 24-hour subdial indicates the reference time. History is still being written...



OMEGA

Constellation




OMEGA

청담 부티크 02 511 5797 • 신세계 강남점 02 3479 6025 • 롯데 잠실점 02 2143 7266 • 현대 무역센터점 02 3467 8632
현대 목동점 02 2163 1283 • AK플라자 분당점 031 708 5520 • 현대 대구점 053 245 2249 • 현대 부산점 051 667 0417



표지에 등장한 다이아몬드 드롭 네크리스는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주얼리 하우스 티파니 (Tiffany & Co.)가 1년에 한 번 전 세계 VIP 고객들에게 선보이는 최상의 하이 주얼리, 블루북 컬렉션에 대표하는 작품이다. 현재 티파니 블루북은 세계적으로 가장 희소하고 아름다운 주얼리를 소개하는 컬렉션으로 명성이 높다. 문의 02-547-9488



10



- 14 **BACK TO BASICS** 지난 4월 말리노에서 열린 지상 최대 디자인 행사 'SALONI 2014'에선 소재와 인체 공학적 구조부터 경험 하나까지, 디자인의 근간을 이루는 세밀한 요소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기본에 충실한 가구와 소품이 빛났다.
- 16 **DREAMY PENDANTS** 모든 여자의 꿈을 이루어줄 아름다운 펜던트 컬렉션.
- 18 **HAUTE PERFUME** 유서 깊은 패션 하우스의 역사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귀족적인 취향을 불만당한 오프 퍼퓸의 세계.
- 20 **TIME AFTER TIME** 유행이 바뀌어도 클래식한 장수, 그 진정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뉴 빈티지 워치 컬렉션.
- 22 **NEW FRAMES** 거울 같은 미러 렌즈부터 아티스틱한 디자인의 선글라스까지, 트렌드의 최전형을 장악한 요즘 가장 핫한 선글라스들.
- 24 **INNOVATORS BY TRADITION** 시계 마니아들에게 인정받는 깊은 역사와 혁신을 모두 갖춘 브랜드, 티쏘의 오랜 이야기와 올해 첫선을 보인 신제품을 소개한다.
- 26 **DREAMS OF LONDON** 클래식을 뛰어넘어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며 새로운 하스토리를 만든 버버리와 상하이의 특별한 조우.
- 28 **PERFECTLY ELEGANT** 최고의 골프 컬렉션으로 전 세계 골퍼들의 변함없는 신뢰를 얻어온 타이틀리스트가 캐디 백과 보스턴 백, 쇼퍼 백 등으로 구성된 프리미엄 컬렉션을 새롭게 출시했다.
- 30 **THE ART OF COLLABORATION**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과 후원하는 전시회 (오르세 미술관展-인상주의, 그 빛을 넘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
- 32 **MAJESTIC SCENERY** 아블라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로 선보인 클럽메드 개립 리조트는 천혜의 자연과 더불어 풍성한 먹거리와 다채로운 활동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다.
- 33 **BE SPORTIVE** 짐(gym)에서나 볼 수 있었던 새로운 스포츠 스타일링이 이번 시즌, 유난히 눈길을 끈다.
- 40 **SUMMER SMART DIET** 최신 다이어트 솔루션을 (스타일 조선일보) 에디터가 직접 체험해본 후 상세히 소개한다.
- 42 **DESIGN YOUR FACE** 여자들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얼굴을 디자인하는 다음의 베스트셀러 피문데이션.
- 43 **TOTAL ANTI-AGING** 아모레퍼미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젤 크림은 가볍고 신뜻하게 흡수되지만 효과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다.
- 44 **TOP BEAUTY SECRET** 트러블은 끝났지만 스타일은 남는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김희애만의 특급 피부 비결을 들어봤다.
- 45 **SENSUAL RED** 6월, 나스(NARS)의 립 컬러 아이템은 당신에게 진정한 레드 컬러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다.
- 46 **EDITOR'S PICK** 슬리밍 앵플과 보디 오일, 데오란트를 비롯해 상큼한 플로럴 향수 등으로 집약된 이달의 코즈메틱.
- 47 **UP IN THE AIR** 가장 행복한 이야기만 담은 아름다운 꿈을 연상케 하는 겐조 퍼퓸의 새로운 향수, '플러워 인 디 에어 오드 투왈렛'.
- 48 **SUITE CLUBS** 골프장에 골프만 치러 간다? 유명 건축가들이 설계한 아름다운 클럽 하우스는 휴식뿐 아니라 예상치 않았던 예술 감상의 즐거움까지 선사한다.

Style 조선일보

Issue.110 June 2014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에디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권유진 yikwon@chosun.com
 이메일 | yejin.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숙 okida@chosun.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조동일 ci@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사법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805 현대 하이패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합니다.
 ※ 스페셜 에디션이나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컬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시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하십시오. stylechosun.com

韓

雪花秀

스킨케어의 모든 성분을 감싸주어
 맑은 윤기로 기품 있는 인상을 만든다

맑은 윤기가 흐르는 피부는 인상까지 달라 보이게 합니다
 스킨케어의 효능 성분을 피부에 단단히 지켜주는 설화수 미안피니셔-
 설화수만의 녹삼효™ 성분이 스킨케어 효능을 극대화해주고
 피부를 감싸는 보호막이 되어 스스로 빛나는 맑은 윤기를 완성합니다
 현명한 스킨케어 마무리로, 맑은 윤기가 만드는 인상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설화수 미안피니셔

Sulwhasoo



Watch
BE THE TIMEKEEPER

시간과 스포츠의 가치를 기록하는 진정한 타임키퍼 위치 브랜드 컬렉션.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소치 동계올림픽을 기념해 출시한 피아시타 플래그십 시계 리미티드 에디션 7백만 원대 오메가. 전 세계 유명 스포츠 경기 대회에서 10년 이상 타임키퍼로 활약한 티쏘에서 올해 새롭게 선보인 쿼츠 스포츠 라인, 국가별 축구 대표팀의 유니폼에서 영감을 얻은 화려한 컬러가 인상적이다. 50만 원대 모두 티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승마 경주의 타임키퍼는 자부심이 녹아든 콘퀘스트 클래식 3백만 원대 롤진. 에디터 배미진



Fashion
MINI ME!

내 발 사이즈보다도 작은 미니 백의 유행에 편승할 것.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경쾌한 컬러 블록이 돋보이는 스캐이백 4백만 원대 샤넬. 플립의 골드 바가 포인트인 스가죽 클러처백 1백43만 원 크로에. 부드러운 곡선의 진한 초록색백 4백만 원대 에르메스. 파인톤 스트랩 힐 1백35만 원 구찌. 디백 미니 버전인 디류브 백 1백67만 5천 원 토즈. 10cm밖에 안 되는 초미니 사이즈의 내온 핑크 캔디백 1백25만 원 생로망 by 에디 슬라빈. 에디터 이재진



Beauty
SUMMER NAILS

아무것도 버리지 않은 멋진 손톱은 마치 '생얼을 드러낸 듯' 허전하다. 그만큼 선명하고 비비드한 네일 컬러가 재년부터 강세를 이뤘기 때문인데, 올 봄여름 시즌에도 어김없이 눈부신 햇살처럼 일록달록 화사한 네일 에-멜이 대거 출시되었다. (위부터 아래로) **일생로망 샴어 록 라피 꾸뛰르**는 마치 수중발레를 하듯 우아한 블루 컬러를 손 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고안한 서머 리미티드 에디션. 하늘과 바다를 연상케 하는 50호 파스텔 블루 컬러는 시원하고 신성한 네일 룩을 완성한다(10ml 3만2천 원대). **디올 베르니 #237**은 소프트한 크림 톤이 감도는 옐로우 컬러로 내추럴하면서도 생기가 있는 네일을 연출한다. 켈 코트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마치 켈 네일을 바른 듯 반짝임과 컬러가 오래 지속되는 것이 특징(10ml 3만2천 원). **일방 맥시 사인 라피**는 켈라의 매혹적인 립스틱 컬러에서 영감을 받은 네일 컬러로 핏핑크 165호는 흰 피부는 물론 까무잡잡한 피부에도 색사하게 매치할 수 있다(10ml 3만 원). **에스티 로더 퓨어 컬러 네일 락카 베리 핫**은 여성스러우면서 섹시한 핫핑크 컬러가 돋보이는 네일 에-멜이다. 워터프루프에 에-멜이 부서지고 컬러가 변색되는 것을 방지한다(9ml 2만2천 원대). **샤넬 르 베르니 샴어 컬렉션 아스틴 라이트**는 모던하고 깨끗한 화이트 컬러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컬러와 믹스해도 매혹적인 컬러를 완성한다(13ml 3만3천 원). 뉴욕 톨 네일 아티스트 진순 최가 만든 **진순 네일 폴리스**는 네일 아티스트가 자신감과 섹시함을 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컬러를 선보인다. 선명하고 청명한 쿨 블루는 울여름 가장 추천하는 컬러다(11ml 3만3천 원). **나스 네일 폴리스 리베르 뎅고**는 붉게 타오르는 듯한 제라늄 색이로 정렬적인 뎅고에서 영감을 받았다. 세련되고 모던한 컬러로 솔리드로 발랐을 때 가장 예쁘다(15ml 2만6천 원). 에디터 권유진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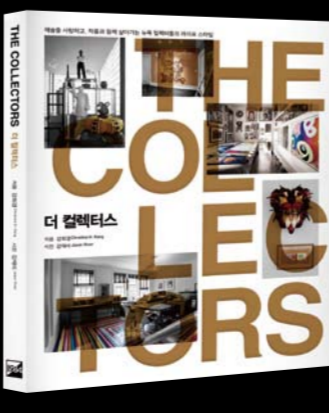
Lifestyle
DRINKS FOR SUMMER

여름이 다가오면서 싱글하거나 강렬한 느낌의 주류가 아무래도 눈길을 끈다. 스파클링 와인, 샴페인, 그리고 보다 강력한 화이트 스피릿 등이 애주가들의 오감을 자극한다. 매년 여름에만 한정판을 내놓는 호주 프리미엄 스파클링 와인 브랜드 상동은 상동 썸머 2014 에디션을 선보였다. 올해는 마린 룩에서 착안한 화이트 & 네이비 스트라이프에 특색 있는 빨간색 로고를 가미해 상동 감 넘치는 보틀 디자인이 보기만 해도 청량감을 자아낸다. 상쾌한 시트러스 향과 복숭아 풍미가 구운 너트의 고소함, 그리고 향신료의 짚조름함과 앙상블을 빚어내는 매력적인 스파클링 와인으로, 가격대도 합리적이다. 특히 이번 에디션의 출시를 기념해 상동 선물라스까지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3만 원대. 인기가 사들지 않는 보드카 시장에도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다. 사리도록 투명한 색과 부드러운 질감이 특징인 프리미엄 보드카 스노우 레퍼드가 국내 시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듬차럼 스노우 레퍼드(눈표범)를 보틀 디자인에 전면으로 내세운 이 제품은 세계 최상급 보드카 증류소로 알려진 폴란드의 루발론에서 생산되는데, 6단계의 증류 과정과 수작업을 더하는 까다로운 제조 절차를 밟는다고. 주조 과정에 시저 황제의 군대가 사용으로 썼다는 스펬트럴 밀을 사용한다. 영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스티븐 스페르가 히말라야를 여행하다가 우연히 멸종 위기에 놓인 스노우 레퍼드에 대해 알게 되면서 2006년 이 보드카 브랜드를 만들게 됐다. 탄생 에피소드가 있다. 실제로 판매 수익의 일부는 스노우 레퍼드 보호 프로젝트에 기부되며 지금까지 한화로 1억 원 정도가 모금됐다고 한다. 영국 왕세손의 파티 주류로 선정된 적이 있고, 스텔라 매킨타니, 비비안 웨스트우드 등 영국 패션 브랜드들의 행사에서도 스노우 레퍼드 보드카 칵테일을 제공하는 등 유럽에서는 이미 명성을 더해가고 있다. 7만8천 원. 에디터 고성연



Book
THE COLLECTORS

라빙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깊어지면서 동시에 주목받는 분야가 '컬렉션'이다. 예전에는 '돈 되는' 작품은 안목도 취향도 없이 통장에 돈을 넣듯 모이두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한 자기만의 수집 철학이 있거나 열정적으로 자원을 넓히면서 선호하는 분야의 예술품을 모으는 진정한 컬렉터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늘어나고 있다. 그림이든 조각이든 가구나든 명확한 취향을 반영한 인생 컬렉션을 꾸려가는 102의 이야기를 담은 책은 이런 시점에서 반갑게 맞아준다. 바로 《더 컬렉터스(The Collectors)》라는 책이다(1984 출판, 5년 넘게 뉴욕 미술계에서 아트 컨설턴트로 활동해왔다는 저자 김희경은 일상에서 예술을 모으고 싶어하는 뉴욕 컬렉터들의 얘기를 풍부한 사진과 함께 담아냈다. 그는 왜 사람들은 예술 작품을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가,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무엇일까, 라는 궁금증에서 이 인터뷰 시리즈를 시작했다고 말한다. "컬렉터의 집을 방문한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집 안에 놓인 작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성격, 기호관, 인생을 미뤄 짐작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뉴욕과 서울을 오가며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희경 씨는 "컬렉션을 단순한 투기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이 책을 통해 예술은 나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실에서 가까이 보고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기를 바란다고 집필 의도를 강조했다. 장가 2만3천 원. 에디터 고성연



PRADA
EYEWEAR

Dane DeHaan
New York, November 2013



플라워 프린트의 옐로 스가죽 클러치. 29X20cm, 59만5천원 MCM.

for her Selection

화사하게 만발한 꽃잎과 꽃을 찾아온 곤충, 달콤한 과일까지,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싱그럽고 산뜻한 패션 아이템. *photographed by hong seung eun*



플라워 프린트 선글라스 40만원대 플레잉가바나 by 룩소티카.



플라워 모티브 비즈 장식을 조합한 브레이슬릿 각 70만원대(핑크), 51만원대(퍼플) 판도라.

정교한 꽃 장식과 앤드루한 동전의 조화가 멋진 이아링 1백4만원 플레잉가바나.



하와이언 프린트와 네오프렌 소재가 조화를 이룬 맨투맨 티셔츠 가격 미정 아릴라노 리본다.



최고급 가죽으로 만든 새 모티브의 데스크 장식품 40만원대 에르메스.



단아하고 아름다운 백합 프린트를 새긴 화이트 레이디 디올 백, 25X21cm, 5백50만원대 디올.



무담배와 플라워 모티브가 예술 작품을 연상케 하는 에-멜 서커스 드 카르띠에 비블드 데코 워치 가격 미정 카르띠에.



입체감 있는 라일락 플라워 장식을 더한 리피마오자 49만5천원 CAALA by 쿤 워드 어뷰.



오랜 세월의 내(1980) 보헤미언 케이스 2만원 맨투맨 by 에르메스.



여성스러운 라인과 플라워 프린트가 돋보이는 스틸레토 힐 63만원 스투어트 와이즈먼.

사티리아노 올림핑 아시메트 이세영 에디터 김유진



꽃, 과일 패턴으로 화사하고 생기 있는 룩을 완성할 플리츠 스커트 1백10만원 홀스마스.



내추럴한 꼬임 루프 장식이 포인트인 샌들 1백63만원 샬롯 올림피아 by 10 포르스 코모.

- MCM 02-540-1404
- 판도라 051-730-3179
- 룩소티카 02-501-4436
- 에르메스 02-544-7722
- 디올 02-513-3232
- 비이커 02-543-1270
- 폴 스키스 02-3447-0278
- 에크루 02-545-7750
- 쿤 워드 어뷰 02-3443-4507
- 카르띠에 1566-7277
- 10 포르스 코모 02-3018-1010
- 아릴라노 리본다 02-6905-3912
- 스투어트 와이즈먼 02-6905-3991
- 플레잉가바나 02-3444-0077



워트가느껴지는 수박 모양 클러치. 27X19cm, 11만5천원 캘린스케이 by 비이커.



FROM A MOMENT TO ETERNITY

COLOMBO

VIA DELLA SPIGA

COLOMBO KOREA Co., Ltd. T 070-7130-9200 www.colomboviadellaspiga.com Giardino di COLOMBO Dosan SHILLA HOTEL Arcade GALLERIA Luxury Hall East GALLERIA Timeworld SHINSEGAE Main SHINSEGAE Centum city HYUNDAI Main HYUNDAI Coex HYUNDAI Mokdong HYUNDAI Busan HYUNDAI Daegu HYUNDAI Ulsan LOTTE Avenuel



하얗고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가 그려진 네오프렌 소재 티셔츠. 36x28cm, 67만원에 프라다.

창랑한 하늘을 프린트한 네오프렌 소재 티셔츠. 67만원. 캘빈 클라인 컬렉션.

에스닉한 곡선 디테일이 돋보이는 스웨이드 하이톱 스니커즈. 1백73만원. 크리스찬 루부탱.

따스한 봄날을 연상케 하는 빛꽃 모티프가 화사한 그래픽 셔츠. 1백3만원. 돌체앤가바나.

센스 있는 수트 룩을 완성해줄 컬러풀 프린트 티셔츠. 21만원. 자방시.

비주얼에도 손색이 없는 보테니컬 프린트의 페도라. 4만원. 질스튜디오 by 핫초온.

가방에 포인트를 줄 노란색 잎사귀 디자인의 내일 테그. 20만원. 프라다.

말 모티프의 커피스 링크. 60만원. 에르메스.

스타일링에 유용한 에리스티트 이셔빙 에디터. 10만원.

인상스러운 해골 패턴을 프린트한 화이트 스니커즈. 52만원. 생로랑.

고급 장식이 멋스러운 브라운 토트백. 36x34.5cm, 가격 미정. 보테가 벤테타.

프라다 02-3218-5331
돌체앤가바나 02-3444-0077
핫초온 02-318-4905
자방시 02-517-7560
돌 포드 02-3438-6234
에르메스 02-544-7722
쿤 02-548-4504
본다삼 02-3444-3300
캘빈 클라인 컬렉션 02-6905-3742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5
보테가 벤테타 02-3438-7682
생로랑 02-3438-7627
룩소티카 02-501-4436

다양한 시를 프린트한 개성 있는 롱클링 왕실형 셔츠. 23만원. 보테니컬 프린트 티셔츠 by 핫초온.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는 화려한 장미 프린트의 재킷. 5백70만원. 돌 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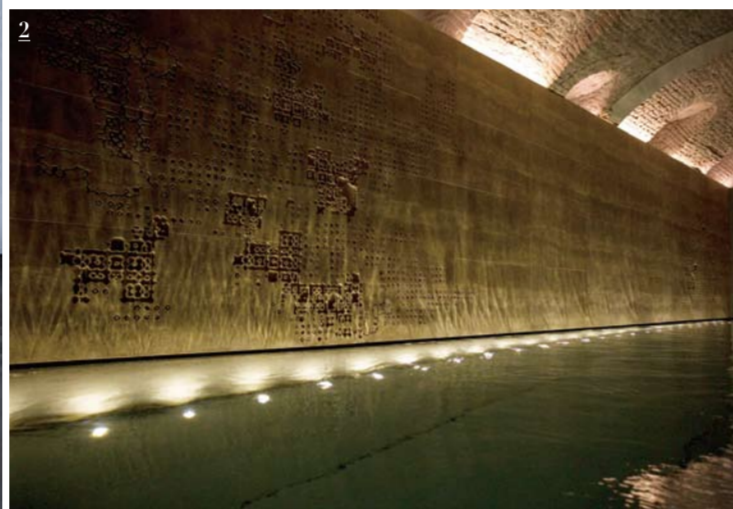


CÉLINE

캘리니는... 신세계 백화점... 신세계 리빙시티... 신세계 북점... 신세계 강남점... 신세계 센트럴시티... 신세계 명동점... 신세계 동대문점... 신세계 홍대점... 신세계 을지로점... 신세계 여의도점... 신세계 강남점... 신세계 센트럴시티... 신세계 명동점... 신세계 동대문점... 신세계 홍대점... 신세계 을지로점... 신세계 여의도점

Back to Basics

세상이 어수선해서 그런지 단단한 '기본'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히 보이는 요즘이다. 리빙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4월 밀라노에서 열린 지상 최대의 디자인 행사 iSaloni 2014에서도 소재와 인체 공학적 구조부터 경첩 하나까지, 디자인의 근간을 이루는 세밀한 요소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기본에 충실한 기구와 소품이 빛났다. 그렇다고 미학적 오라가 뒤지지도 않는다. 톡톡 튀는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비용의 미학을 바탕으로 한 견고한 내실에서 나오는 창조물의 오라는 지속성도, 중독성도 훨씬 더 강하다는 진리가 새삼 뇌리를 사로잡는다.



언젠가 로마 바티칸 박물관에서 은은한 회색이 감도는, 녹색과 자줏빛의 조화가 몹시도 아름다운 대리석 바닥을 보고는, 그저럼 빼어난 문화적 유산을 일상에서 누려온 이탈리아인들이 재료와 색채를 잘 쓰지 못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다. 그 대리석 플로어의 색 배합과 무늬만 그대로 활용해도 바로 패션쇼 무대에서 튀어나온 듯한 매혹적인 드레스나 세련된 기구를 금세 빛낼 수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견고한 느낌과 차갑고 매끈하면서도 은근한 따뜻함도 품고 있는 특유의 광택은 대자연의 위대함을 절로 인지하게 해준다. <자연이 만든 디자인>이라는 책을 쓴 디자인 이론가인 매기 맥넬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자연의 원리와 패턴, 과정을 알면 더 이상 우연에 기대지 않고 직관에 따라 참신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을 것이다. 자연이 주는 메시지를 이미지로 표현하는 능력이 디자인 미학의 관건이라는 얘기다.

소재의 아름다움을 한껏 살린 디자인

지난 4월 밀라노에서 펼쳐진 지상 최대의 디자인 축제 iSaloni 2014에서는 이처럼 소재(material) 자체에서 영감을 얻는 경향이 유난히 눈길을 사로잡았다. 디자인을 고려해 소재를 골랐다가보다 아예 재료 자체가 디자인의 시발점이 되는 경우도 많았기에 소재의 견고함과 아름다움에 바탕을 둔 수작이 눈에 띌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대리석이 크게 조명받았던 이유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역시 이탈리아 업체와 스타 디자이너의 '뽕찜은 만남

으로 탄생한 작품이 눈에 띄었다. 스페인 출신으로 수년째 '밀라노의 여왕'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는 파트리시아 우르퀴올라가 이탈리아 대리석 브랜드인 부르디(Burdi)와 손잡고 선보인 '라빗 컬렉션(Rabbit Collection)'은 파스텔 색조의 오닉스와 대리석이 자아내는 빼어난 앙상블 속에 기하학적 상감무늬가 은은하게 돋보이는 작품이다. 우르퀴올라와 부르디는 지난해 큰 반향을 일으킨 '어스퀘이크 5.9 컬렉션(Earthquake 5.9 Collection)'에 이어 다시금 호평을 받았다. 토스카나에 기반한 대리석 업체인 루체 디 카라라(Luce di Carrara)의 근사한 대리석을 활용한 5종의 테이블 '솔리드 패턴(Solid Patterns)'도 소재의 미학이 극명하게 드러난 작품이다. 연한 핑크빛과 자마다 다른 회색 등 감탄을 자아내는 색조와 자연미 흐르는 무늬가 멋진 이 테이블 세트의 디자인은 암스테르담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혼성 듀오' 솔텐 & 바이징스(Scholten & Baijings)가 맡았다. 일본 넨도(Nendo) 스튜디오는 유리를 활용하면서도 마치 대리석 같은 느낌이 나도록 색을 입혀 투명한 기운을 감춘 '브러시스토르크(Brushstoke)'라는 작품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이탈리아 명품 가방 브랜드로 알려져 있지만 가구에서도 은근한 강점을 지닌 보테가 베네타

는 특유의 절제되고 세련된 분위기를 품은 테다 마감과 소재에 정성을 기울인 흔적이 역력한 우아한 가구 컬렉션을 내놓았다. 투명한 무라노 글라스를 사용하고 전선을 가죽으로 감싼 모양새가 매력적인 LED 램프, 스틸링 실버에 플래티넘 계열의 로듐과 루테튬이 어우러져 엔틱한 느낌이 나는 실버 웨어로도 주목받았다. 올해 국내에서도 데스크 용품과 자기(porcelain) 등 홈 컬렉션을 일부 선보일 예정이다.

이uri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본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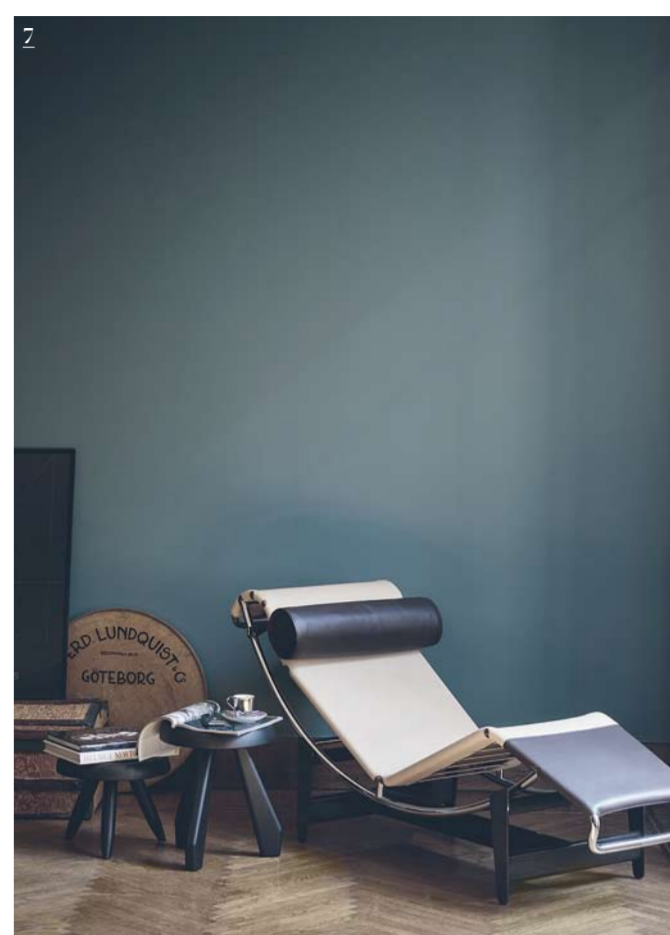
소재에 대한 집중적인 고찰은 다른 시각에서 보면 '기본'을 생각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새삼 되새기게 한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가구나 인테리어에서도 기본처럼 중요한 게 있을까? 자연이 나름의 절차를 차근차근 밟으며 생장과 소멸을 관장하듯이 인간과 가구, 공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내실을 공고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그 자체로도 빛이 날 수 있기에 굳이 쓸데없는 기능이나 장식 등 군더더기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예컨대 서랍이라면 최고의 경첩을 활용해야만 부드럽게 열고 닫는 적당한 간격에서 멈출 줄 아는 편리함을 선사할 수 있는 법이다. 이처럼 디자인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들과 용도의 관계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디자이너의 기본 자세일 테고 말이다. 앞서 언급한 넨도 스튜디오에서는 이탈리아 명품 가방 브랜드인 콜롬보와 함께 진행한 컬래버레이션 작업을 2014 밀라노 가구박람회에서도 선보였는데, 이러한 관계에 대해 고민하다가 자발적으로 한 가지 컬렉션을 더 제안하게 됐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이 '8 Bags'다. 말 그대로 8개의 백인데, 가로 35cm, 세로 37cm, 핸들 높이 20cm로 동일하지만 1개의 가방과 핸들을 1차원적으로 배열한 뒤 3차원적으로 다양한 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각기 다른 디자인을 빚어낸 것이다. 콜롬보 특유의 악어가죽 소재와 캔버스 천을 접목한 시도도 재미나고, 미학적으로도 꽤 출중하다. 밀라노 현지에서 만난 넨도의 수석 디자이너 오키 사토는 "패션 브랜드에서 가방을 디자인한 건 처음인데, 그러다 보니 백의 핵심 요소인 본체와 핸들의 관계에 대해 열심히 연구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기본에 몰두하다 보니 흥미로운 창조물이 탄생한 셈이다. '기본의 철학'이 첨단 기술을 적용한 진화를 배제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소재는 가장 소파담게, 조명은 가장 조명답게 뒷받침해주는 첨단 기술의 효용을 가치를 더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거장 알레산드로 멘디니가 디자인을 맡은 깔끔한 디지털 기술을 얼마나까지 있게 녹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손안에 꼭 들어가는 투명 '스테인드 플라 소재'의 이 작은 램프는 뱀시도 튀어나지만 머리 부분을 살짝 누르면 예쁜 종소리가 울리는 매력까지 갖추었다. 캄파넬로는 분위기를 돋우는 탁자 위의 '전차 촛불'로 센스 있게 활용할 수 있지만 잔잔하게 퍼져나가는 불빛이 아기에게 자극적이지 않다는 장점에 힘입어 이미 국내에서도 수유등이나 취침등으로 인기가 무척 높다.

거장들에게 바치는 오마주

이처럼 단 하나의 기능이나 장식을 덧대는 일도 사용자들을 위한 '기본'을 더욱 단단하게 떠받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지속 가능한' 디자인은 따로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다. 명품 의자로 손꼽히는 바르셀로나 체어는 1929년에 탄생했지만 아직까지도 모더니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데, 길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X자형 강철 다리를 제작하는 공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한다. 금속이라는 소재를 이음매 없이 우아하고 간결한 모양새로 잡아내면서 편안히 의자를 받쳐주는 역할을 제대로 해내도록 디자인하는 작업이 당시로서는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단지 독창적인 디자인을 내놓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기능에 역점을 둔 '완전체'를 빚어내려는 고집이 담겨 있기에 지금까지도 이 의자는 여전히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찰스 & 레이 임스 같은 거장들의 작품이 장수하는 데는 다이유가 있다. 올해 밀라노에서도 이처럼 '전설들에게 바치는 오마주' 작품이 눈에 띄었다.

스위스 명품 가구 브랜드 비트라(Vitra)에서는 한스 코레이가 1939년 스위스 박람회를 위해 디자인한 작품인 '랑디(Landi)' 알루미늄 체어를 다채로운 색조로 내놓았다. 이 가볍고 실용적인 의자는 그동안 살짝 변형되기도 했지만 비트라라는 기술력을 동원해 1939 디자인을 재현해냈으며 일부 공장에서는 로봇을 활용해 가격대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의 스타 디자이너 헬라 용에리 위스(Hella Jongerius)는 핀란드의 전설 알바 알토(Alvar Alto)가 세운 디자인 회사 아르텍(Artek)과 손잡고 알토의 401 암체어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탈리아 브랜드 카시나(Cassina)는 스위스 출신의 건축 거장인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명작 'LC4'를 선택했다. 르 코르뷔지에의 사촌이자 동료인 피에르 잔네레, 건축가 샤를로트 페리앙과 공동으로 작업한 LC4는 움직일 수 있는 좌석과 위치 조절이 가능한 머리 받침으로 구성된 인체 공학적인 라운지 체어로 시대를 넘어서는 세련미를 갖췄다. "좋은 디자인은 뚜렷하고, 위대한 디자인은 투명하다"라는 말이 있다. 거장들의 디자인이 여전히 유효하다 못해 시들지 않는 인기를 누리는 이유는 굳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자체로 내면에서 솟아나는 투명

한 오라를 발하기 때문일 것 같다. 디자인 저술가 매기 맥넬이 강조했듯이 아름다움이 겉으로 드러난 자선이라면, 속성은 내면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법이니까 말이다. **18** 에디터 고성연 (밀라노 현지 취재)



1, 4 네덜란드 혼성 듀오 디자이너 그롬 솔텐 & 바이징스가 이탈리아 대리석 업체인 루체 디 카라라와 손잡고 선보인 5종의 작품에 사용한 대리석 '솔리드 패턴(Solid Patterns)'. 4번 사진은 이를 활용한 작은 탁자. © Scholten & Baijings 2014 Photography: Schellens & Abbenes 2 프리미엄 호텔이 인테리어에 활용되는 부르디의 이탈리아 대리석. 3 & 8 바이징스에서 이탈리아에서 건축가 안토니오 차티리오가 이끄는 막살토(Maxalto) 컬렉션 중 새롭게 선보인 알코르(Alcor). 나무의 물결을 잘 살린 우아한 색조와 미감 처리가 돋보이는 수납장. 5 & 6 악어가죽과 캔버스의 조화가 색다른 일본 디자인 스튜디오 넨도의 작품 '8 Bags'. 밀라노 가구박람회 기간에 첫선을 보인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콜롬보의 리미티드 에디션. 6번 사진은 콜리탈리아(Colitalia)라는 브랜드의 작업한 '브러시스토르크'라는 유리 제품. 마치 대리석 같은 느낌이 난다. 7 건축가 샤를로트 페리앙에 바치는 오마주로 선보인 'LC4 CP'가시네). 2014 루이비통 Icons Collection. 8 이탈리아 출신 디자인 그룹 미스트오(Mist-o)의 아름다운 알루미늄 인테리어 디자인. 9 스위스 가구 브랜드 비트라가 1939년 탄생한 가벼운 알루미늄 체어 '랑디(Landi)'의 현대판으로 새로 내놓았다. 10 이탈리아의 거장 알레산드로 멘디니가 디자인한 앙증맞은 LED 램프 '캄파넬로'. 로엔틱한 전차 캔들로도, 아늑한 등자형의 수유등이나 취침등으로도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www.ramun.com). 11, 12 상세한 장인 정신으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 보테가 베네타의 우아한 코트 벨벳 소파 컬렉션 무라노 글라스를 사용한 투명 램프.



Dreamy pendants

주얼리에 대한 아름다움 꿈을
꾸고 있다면 펜던트가 제격이다.
사랑스러운 하트 디자인부터 의미
심장한 열쇠 모티브, 볼륨감 넘치는
블랙 오픈스까지, 모든 여자의 꿈을
이루어줄 아름다운 펜던트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 화이트 자개에 옐로 골드, 다이아
몬드를 세팅한 스톤 사이즈 아틀레트 드 카르띠에 네크리스 5백
10만원대 **카르띠에**, 발침 모티브의 비 마이 리브 옐로 골드 다이
아 펜던트 2백50만원대 **소메**, 옐로 골드 티파니 아틀라스 컬렉
션 라운드 펜던트 4백만원대 **티파니**, 화려한 부케를 표현한 카를
레야 네크리스 4천9백만원대 **루시에**, 백조 모티브의 큐프리스
펜던트 7천만원대, 밤의 머리에서 영감을 받은 세행 화이트 골드
펜던트 3천만원대 모두 **부쉐론**, 카보숏 컷 블랙 오픈스를 세팅한
아틀레트 드 카르띠에 펜던트 8천9백만원대 **카르띠에**, 링 형태
로 완성한 파트르 화이트 미니 링 펜던트, 화이트 세라핀을 매치
한 스퀘어 형태의 파트르 화이트 레펠글러 펜던트 각 9백만원대
모두 **부쉐론**,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한 비, 제로원 네크리스
9백만원대 **블가리**, 블랙 세라핀과 화이트 골드, 다이아몬드를 파
베 세팅한 트리니티 블랙 & 화이트 네크리스 6백30만원대 **카르
띠에**, X자 모티브의 라임 컬렉션에 하트를 더한 여성스러운 소메
리양 오픈 하트 펜던트 미디엄 사이즈 7백만원대 **소메**, 6개의 스
크류 모양 사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러브 펜던트 9백40만원
대 **카르띠에**, 노트르담 대성당의 정미의 창으로 불리는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영감을 얻은 르누쿠르 네크리스 1천만원대 **루시에**,
진주에 볼 모양의 다이아몬드를 더한 데이지 팡 네크리스 4백30만원
대, 진주에 식용식물 모티브를 더한 데이지 트림 네크리스 2천2
백만원대 모두 **타사키**, 쿠션 컷 옐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라운드
칼레이드스크프 키 펜던트 3천9백만원대, 가운데에 핑크 다이아
몬드를 세팅한 꽃 모양의 인켄트 퀴트과 하트 키 펜던트 1천3백
만원대 모두 **티파니**, 에디터 **베미진**

티파니 02-547-9488 소메 02-3467-8872 루시에 02-
512-6730 타사키 02-3461-5558 부쉐론 02-543-6523
카르띠에 1566-7277 블가리 02-2056-0172



T+ Goal



TISSOT QUICKSTER FOOTBALL. EXCLUSIVE CHRONOGRAPH MOVEMENT
WITH A SPECIAL FOOTBALL TIMEKEEPING FUNCTION, 316L STAINLESS
STEEL CASE AND ENGRAVED CASEBACK. INNOVATORS BY TRADITION.

WWW.TISSOT.KR

T+
TISSOT

LEGENDARY SWISS WATCHES SINCE 1853

Haute perfume

어디서나 살수 있는 혼한 향수 대신,
디자이너의 취향과 유서 깊은 패션 하우스의 역사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우아함과 귀족적인
취향을 불렌딩한 오트 퍼퓸의 세계로 초대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오른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톰 포드 벨벳 오가드 부티크 수가 많지 않고 비밀스러운 VIP만을 겨냥한 최고의 디자이너 톰 포드가 선보인 클래식한 디자인의 향수. 톰 포드 향수 컬렉션에서 최근 선보인 벨벳 오가드는 상상 속의 향기인 블랙 오가드에 벨벳 오가드, 로즈 오일, 제스민, 퍼플 오가드가 아우라져 관능적인 향기를 완성했다. 50ml 12만원. 문의 02-6905-3534

샤넬 레 엑스클루시브 1920년대 마드루 아젤 샤넬과 샤넬의 첫 조향사 에르네스트 보가 패션 부티크를 위해 완성한 향수와 현재 조향사 자크 폴주가 이에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향수 총 14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레 엑스클루시브 자제는 남성 속옷에만 사용하던 자제(Jersey) 소재를 여성 패션 패브릭으로 사용한 샤넬의 대법원에 경의를 표하는 향이다. 가족용 화장품에 주로 사용하던 피우더리한 라벤더 향을 간결하고 차분한, 샤넬만의 우아한 라벤더로 재해석했다. 75ml 21만원. 문의 080-332-2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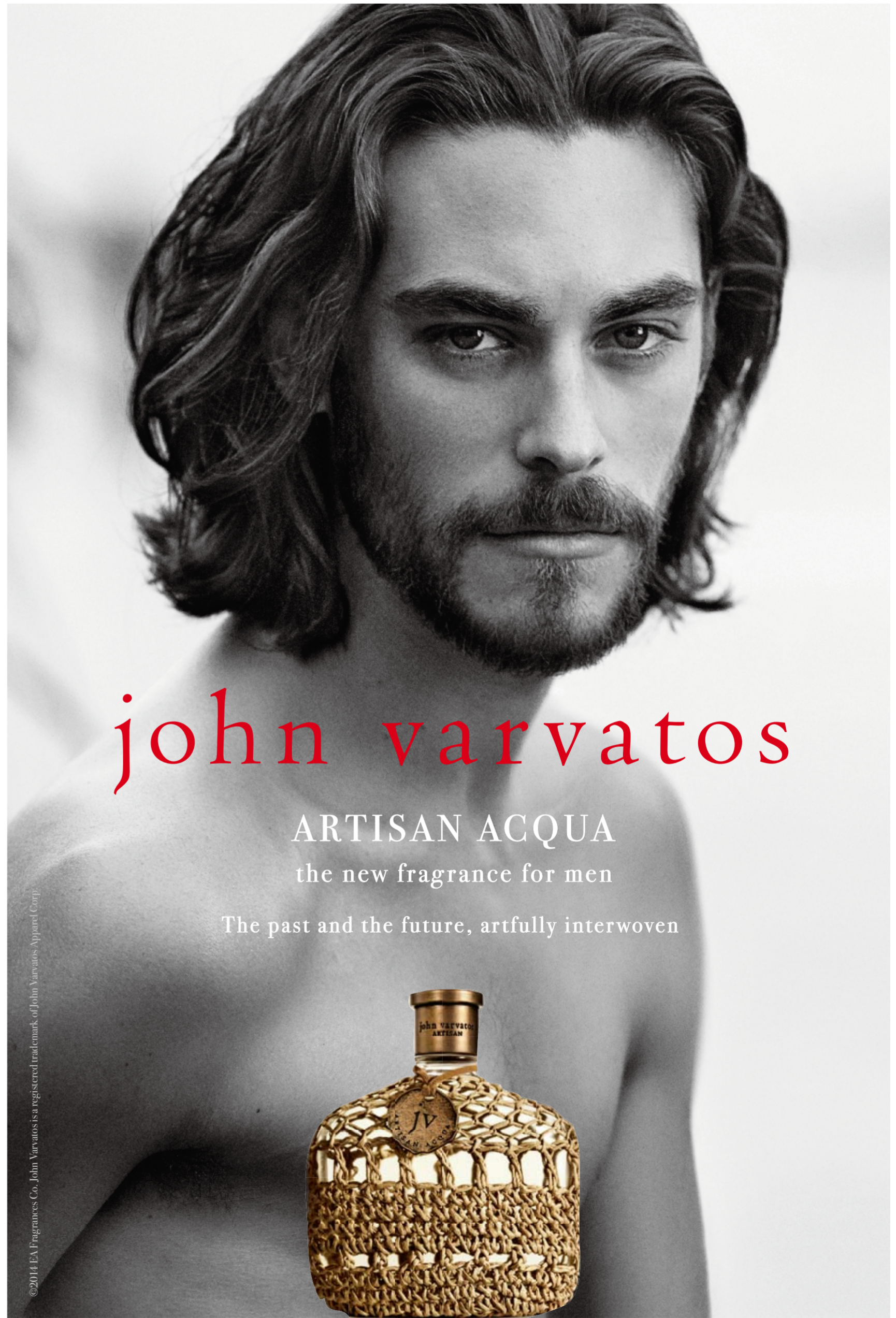
조르자오 아르마니 아르마니 프라베 중독성 있는 향기로 이미 국내에서도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아르마니 프라베. 평소 디자이너인 아르마니가 즐겨 사용하는 독특한 향기를 모아 향수를 완성했다. 스스로 프라베 향수를 '가장 신중하게 존중'과 '창조'를 정도로 그 의미가 각별하다. 프라베 라인 중 '라 콜렉시옹 에글라드 자스민'은 이탈리아의 귀족 가문인 드 메디치의 향인 자스민 향기를 담고 있다. 100ml 29만원대. 문의 080-022-3332

에르메네빌도 제나 에센스 컬렉션 1백 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남성 브랜드 에르메네빌도 제나의 프리미엄 향수 라인 '에센스 제', 에르메네빌도 제의 최고급 맞춤 양복 라인인 쿠티르 컬렉션에서 영감을 얻은 에센스 컬렉션 중 여성 번째 향수인 '아이티엔 베티버'는 아이티 남성에서 재배한 최고급 베티버와 이탈리아인 베르가모트의 향상적인 조합이 신선한 향수다. 원료의 산지와 이름을 제품 이름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나 부티크에서 만나볼 수 있다. 125ml 32만5천원대. 문의 02-3440-2757

디올 라 콜렉시옹 프라베 크리스찬 디올 오트 쿠티르 컬렉션을 선보이는 브랜드답게 향수 역시 '꾸뛰르'에 피우라디라는 슬로건을 디올 하우스의 역사적인 터치로 완성했다. 그중 '그리 몽타뉴' 향수는 디올 하우스를 상징하는 도브 그레이 컬러에 오마주를 바치는 향을 담았다. 디올 하우스가 위대한 에비뉴 몽테뉴 30번지의 주소에서 이름을 딴 향수인 만큼 브랜드의 정수를 느낄 수 있다. 250ml 46만6천원. 문의 02-3438-9631

에르메스 에르메상스 오로지 에르메스 매장만을 위해 개발한 에르메상스 컬렉션. 에르메스의 조향사 장-클로드 엘레나가 완성한 향수로, 여성과 남성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11개의 에르메상스 컬렉션 중 사진 속의 에피스 아린은 생동감 넘치는 바다의 향기와 뒤섞인 향신료의 향으로 콘트라스트가 느껴지는 우아한 향수다. 혀과 무릎을 먹인 나무 바닥, 우드 스톱크 향기도 느낄 수 있다. 50ml 30만원대. 문의 02-3015-3258

까르띠에 레 제르 드 퍼퓸 '시간의 향수(The Hours of Perfume)'라는 콘셉트로 감동하고 감성적인 향기를 담은 특별한 향수 컬렉션. 까르띠에의 조향사 마텔로 로랑이 만든 100% 하우스 향수로 총 13가지 컬렉션이 있지만 해마다 순차적으로 발표해 모든 향수를 만나 보기가 까지는 4년이 소요된다. 전 세계에 단 35개의 까르띠에 부티크에서만 판매하는데, 국내에서는 창립동에 위치한 까르띠에 메종 부티크에서 만날 수 있다. 사진 속의 우아한 패키지의 러브 브라운드는 '빛'은 시간이라는 의미로 라인과 진 토닉이 아우라져 타입 듯한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75ml 40만원대. 문의 1566-7277 에디터 배미진



john varvatos

ARTISAN ACQUA
the new fragrance for men

The past and the future, artfully interwoven

©2014 EA Fragrances Co. John Varvatos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John Varvatos Apparel Corp.

Time after time

사진 속 작고 아름다운 위치는 빈티지한 매력을 담은 현재의 시계들이다. 유행이 바뀌어도 클래식한 경수 그 진정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뉴 빈티지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06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해리 윈스턴 에버뉴 C 미니 풀 파베 다이아몬드 화이트 골드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박곡해 세팅한, 손목에 착용하기 유연한 커브 형태의 주얼리 워치. 8천원대. 문의 02-540-1356

보베 아이디어 아이디어 7데이 스텔렌 투르비용 가장 고조적인 기법으로 시계 예술을 이어가고 있는 보베의 손목시계 경 회중시계, 별다른 스트랩을 함께 구성해 회중시계의 골드 체인을 분리하고 스트랩을 장착할 수 있다. 백 케이스를 오픈하면 그대로 탁상시계가 된다. 투르비용이 장착되어 더욱 아름답다. 가격 미정. 문의 02-2192-9628

브레게 레인드 네이플 8918BB 나폴리의 여왕이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여동생 카롤린 보나파르트를 위한 최초의 손목시계에서 영감을 받은 유서 깊은 디자인이다. 에그 셰이프 케이스에 화이트 골드 체인 밴드가 더없이 화려하고 상쾌하다. 6천원대. 문의 02-3149-9551

카르띠에 산투스 마드모아젤 미니 주얼리 워치 카르띠에 클래식 워치의 미니 버전. 사이즈 24mm로 광경이 작고 엔터테인먼트, 핑크 골드 케이스, 팔각형 크라운, 매트한 브라운 컬러의 약아기죽 스트랩까지 클래식한 모든 요소를 갖췄다. 1천5백원대. 문의 1566-7277

크로노스워스 시리우스 이티스틱 엔틱 로진 엔진을 이용한 전통적인 에펠 공법으로 탄생한 시리우스 이티스틱 컬렉션. 빈티지의 사카스에 서명감을 받은 강렬한 기묘세 패턴의 로진 블루 다이얼이 마치 블랙홀처럼 시선을 사로잡는다. 9백20원. 문의 02-3467-8718

부쉐르 리플레 다이얼 워치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고풍 기법의 골드 시계반을 다이얼에 매치해 마치 주름을 잔뜩 두 유연한 골드 시계가 빈티지한 매력을 발한다. 스트랩을 쉽게 교체할 수 있어 원하는 디자인의 밴드를 다양하게 매칠 수 있다. 1천원대. 문의 02-772-3508

오메가 드빌 프라스티지 24mm 케이스 사이즈에 18K 레드 골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마디오브릴 다이얼을 매치한 클래식한 디자인의 워치. 1천5백원대. 문의 02-511-5797

에르메스 난투켓 심버 워치 고전적인 케이스 코드 워치를 더 슬림하고 작게 변형한 케이스 코드 난투켓(Nantucket) 라인 중 56개의 다이얼을 드를 세팅한 클래식 블루워치이 도는 재래용 컬러 약아기죽 밴드를 매치해 더욱 클래식하다. 1천5백원대. 문의 02-3448-0728

에버 브루트르 리베르스 듀에트 레이다 1개의 무브먼트로 2개의 시계가 작동하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워치로, 칼리버 844를 장착했다. 케이스를 열어서 열어 두면 수 있는데, 한쪽 면은 블랙, 반대쪽 면은 화이트 다이얼이며 각기 다르게 설정한 2개의 시간을 볼 수 있다. 2천원대. 문의 02-756-0300 에디터 배미진



beyond the space, beyond the sound



ProLogos Wireless System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화이트 프레임과 유니크한 메탈 브리지, 미러 렌즈가 트렌디한 선글라스 28만9천원 **젠들문스터**, 레트로 무드의 레오파드 미러 렌즈 선글라스 10만원대 **로스텍스 by 유타갈** 더블유, 캐즈 0이 프레임과 추상적인 패턴이 인상적인 선글라스 40만원대 **자방시 by 디리F&S**, 칠간이 독특한 블랙 프레임의 미러 렌즈 선글라스 38만원 **타투**, 남성이 느끼는 미러 렌즈 보이 선글라스 59만원 **플 포드 by 세원**, 콜라보로 탈착할 수 있는 유니크한 디자인의 선글라스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메탈릭한 패턴의 블랙 프레임 미러 렌즈 선글라스 42만원 **3.1 필립 필 by 한독**, 오각형의 기하학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핑크 프레임 선글라스 46만원 **마우미우**, 6개의 프레임 컬러와 10개의 시드 브리지 컬러를 조합해 나만의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미러 렌즈 선글라스 69만원 **카멜레온즈**, 투명 프레임과 개성 있는 레트로 디자인이 눈에 띄는 선글라스 40만원대 **마크 제이콥스 by 사뮈엘**, 스포티한 디자인의 미러 렌즈 선글라스 40만원대 **프라다 by 록스타카**, 에디터 권유진

젠들문스터 1600-2126
 유타갈 더블유 02-6911-0845
 디리F&S 02-546-7784
 타투 070-4240-0025
 세원 02-3218-8376
 루이 비통 02-3432-1854
 한독 02-514-9006
 마우미우 02-3218-5341
 카멜레온즈 070-4417-2028
 사뮈엘 02-2017-3765
 록스타카 02-501-4436

New frames

가을 같은 미러 렌즈부터 이티스틱한 디자인의 선글라스까지, 점점 더 과감해지는 선글라스 스타일은 아이웨어 하나만으로도 룩 전체가 얼마나 세련되고 트렌디해질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트렌드의 최전방을 장악한 요즘 가장 핫한 선글라스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swatch[®]
 SCUBA lib-e

innovators by Tradition



세계 최대의 시계 박람회인 스위스 바젤 페어에서 가장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이고, 가장 많은 방문객들로 붐비는 곳은 바로 티쏘의 전시장이다. 시계 마니아들에게 인정받는 깊은 역사와 혁신을 모두 갖춘 브랜드, 티쏘의 오랜 이야기와 올해 첫선을 보인 신제품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1853년 스위스 르 로클에서 시작된 티쏘의 역사

티쏘(TISSOT)라는 브랜드명은 익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스위스 국기와 똑같은 붉은 열십자 모양의 브랜드 로고, 박력 있는 디자인으로 전 세계 남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브랜드. 하지만 티쏘가 1853년 스위스에서 태어난 깊은 역사를 배경으로 한다는 사실은 브랜드의 유명세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았다. 1백60여 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대표적인 스위스 메이저 워치 브랜드인 티쏘는 스위스 쥐라 산맥에 위치한, 스위스 시계 제작의 본고장인 르 로클(Le Locle)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탄생했다. 1853년 창립한 이후, 2개의 시간을 표시할 수 있는 회중시계를 설계하고 제작해 온 티쏘의 시작만 보아도 오랜 시계 제조 전통 속에 혁신성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브랜드 창립자인 에밀 티쏘는 세계 진출을 꿈꾸고 있었기에 1853년에 러시아 제국의 황제 수비대 요원이 사용할 사보네트 회중시계를 판매하며 저변을 넓히기 시작했다. 브랜드의 성장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 공방의 규모는 공장이라 불릴 만큼 커졌고, 1930년의 대공황 이후 티쏘는 최초의 항자성 시계를 개발하기도 했다. 이렇게 혁신을 중시하는 티쏘는 엄격한 품질 수준을 맞추는 것은 물론, 다양한 기능과 취향까지 충족시키며 광범위한 시계 모델을 제공하며 1백60여 개국에서 선보이는 패자를 거두었다.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면서도 그 기준을 엄격하게 유지하는 것은 티쏘의 원칙이자 핵심이다. 지난 2011년 세계 타이밍 대회(기업-클래식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을 만큼 스위스 메이저 워치 브랜드로서의 명성도 굳건히 지키고 있다.

전통과 혁신, 정확성의 조화

티쏘의 브랜드 정신과 세계적인 인기를 모두 검증하는 대표 모델은 바로 PRC200이다. 오랜 시간 티쏘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이 디자인은 올해 PRC200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젠트와 오토매틱 젠트 등 두 가지 모델로 선보인다. PRC200 모델은 스포터함과 클래식함을 모두 갖춘 모델로 클래식한 수트에 도, 캐주얼한 차림에도 모두 어울리는 세련된 디자인을 갖추었다. 스틸 소재에 오토매틱 무브먼트, 200m 방수 기능, 가시성을 높인 인덱스의 슈퍼루미노바까지 디테일에도 완벽을 기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젠트 모델은 크로노그래프 애드 & 스피드 기능의 타키미터(tachymeter), 속도

측정 기능과 날짜 기능을 더해 완성도를 높였다. 남성다운 스포터함과 진정한 클래식함을 원하는 이들의 다양한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완벽한 모델이다. 티쏘 제품이 지니고 있는 역동성, 정확성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특징은 세계적으로 스포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는 점이다. 1000분의 1초까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의 공식 타임키퍼로 활동하고 있다. 티쏘는 국제농구연맹(FIBA), 호주 축구 리그(AFL), 모터사이클 그랑프리(MotoGP)를 비롯한 사이클링, 펜싱과 아이스하키 월드컵 챔피언십의 공식 타임키퍼이자 파트너로서 올해는 제17회 인천 아시안 게임의 공식 타임키퍼로 선정되어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의 활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듯 10년 이상 전 세계 유명 스포츠 경기 대회에서 타임키퍼로 활동한 티쏘는 올해 퀵스터 라인을 론칭하고, 이 중 축구에 특화된 퀵스터 풋볼 라인을 선보였다. 옐로와 그린 컬러의 디자인만 보아도 브라질 월드컵을 기념하는 에디션임을 알 수 있는 이 신선한 위치는 가능성도 독특하다. 시계 마니아들이 손목시계를 통해 타임키퍼로서 역할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프 타임과 오버 타임이 있는 축구 경기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무브먼트를 탑재한 것이다. 이 퀵스터 풋볼 위치를 착용한 사람이라면 타임키퍼로서 경기에 빠져들 수 있기에 티쏘의 유니크함이 빛을 발한다. 다양한 컬러의 디자인은 축구 경기를 상징하는 유니폼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 대표팀의 컬러를 담았다. 또 백 케이스에는 축구 경기의 특징적인 요소를 새겨 넣어 축구 마니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강렬한 디자인의 티쏘 퀵스터 풋볼 라인은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착용자에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선사하는 티쏘의 브랜드 가치를 잘 드러낸 모델이다. 전통을 중시하며 성능과 정확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티쏘의 유니크한 위치는 대중에게 시계의 가치를 전하고 나만의 시계를 소장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문의 02-543-7685 에디터 배미진

1(왼쪽부터) 티쏘 PRC200 오토매틱 젠트, 티쏘 PRC200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젠트, 2,3 선명하고 화려한 컬러의 축구 국가 대표팀의 유니폼에서 영감을 얻은 퀵스터 풋볼 워치, 백 케이스에 축구공 패턴이 새겨져 있다. 4 티쏘 PRC200 오토매틱 젠트 무브먼트, 5 스위스 르 로클에 위치한 티쏘 최초의 공방 이미지.



꿈꾸던 휴가, 그 이상의 행복 **Club Med**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여름휴가 BIG BONUS 2

성인 117만원대부터 에어패키지(유류할증료, 공항세 포함)

발리, 푸켓, 체러팅, 빈탄, 카비라, 계림, 몰디브 카니

출발일: 2014년 6월 1일 ~ 10월 28일 예약마감: 2014년 6월 30일

객실 상황 및 유가 변동으로 상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클럽메드 예약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02 3452 0123
www.clubmed.co.kr
f/clubmedkorea

꿈꾸던 휴가, 그 모든 것! 클럽메드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휴가

▫ 왕복 항공권 및 공항 클럽메드간 교통편
▫ 인력한 객실

▫ 일찬 프로그램이 가득한 연령대별 키즈클럽
▫ 나이트 엔터테인먼트 & 파티

▫ 고품격 식사 및 종일 제공되는 음료, 주류 및 간식 서비스
▫ 다양한 스포츠, 액티비티 및 강습

dreams of Lond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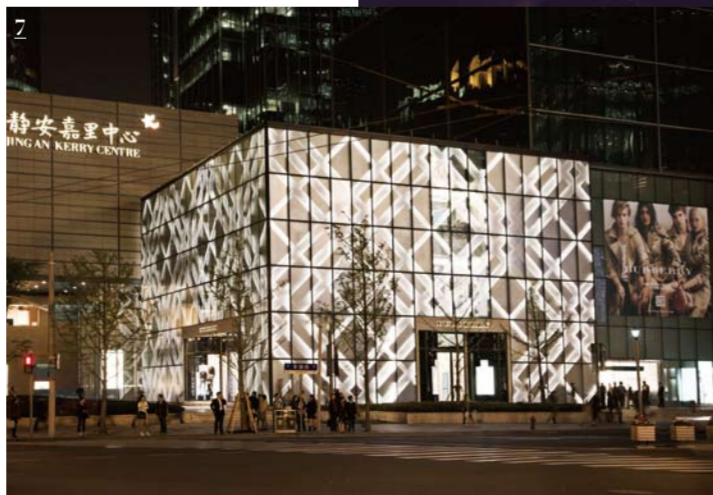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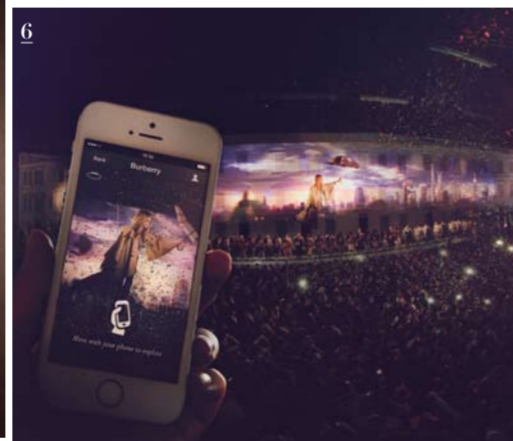
어느덧 글로벌 패션의 중심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상하이. 이 에너지적인 도시에 버버리의 헤리티지와 테크놀로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다. 런던을 옮겨놓은 듯한 환상적인 시간. 상하이와 런던의 에너지가 결합된 아름다운 또 하나의 '사건'이었다. 클래식을 뛰어넘어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며 새로운 히스토리를 만든 버버리와 상하이의 특별한 조우.

상하이에서 런던을 재현하다

"상하이에 오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이는 버버리 브랜드에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순간이에요. 오늘의 이벤트는 우리의 영국적인 창의성, 혁신, 헤리티지에 대한 모든 것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것들을 이 멋진 도시와 공유하게 되었어요. 상하이는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이며, 많은 영감을 줍니다. 디지털과 오프라인을 통해 패션과 댄스, 음악, 크래프트맨십, 예술이 하나 되는 환상적인 공연이었습니다. 이는 상하이와 런던을 연결해주는 듯 같았습니다." _ 크리스토퍼 베일리(버버리 크리에이티브 총괄 책임자)

지난 4월 24일 버버리는 상하이의 새로운 플래그십 스토어 론칭을 축하하며, 영국의 고유한 정신과 창의성, 그리고 헤리티지를 중국의 심장부인 상하이에서 재현하는 환상적인 공연을 선보였다. 제이미 캠벨 바우어, 안젤라 베이비, 두주안 등 영국과 중화권 셀러브리티를 포함해 1천5백 명이 넘는 글로벌 게스트와 관객은 마치 영화 세트장과 같은 공연장에서 재현된 런던의 거리와 공연을 감상하며 축하했다. 황푸강의 조선소에 세워진 공연장은 런던의 121 리젠트 스트리트(121 Regent Street)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다. 시네마의 골든 에이지를 연상하게 하는 공간은 버버리의 헤리티지, 음악, 패션, 브랜드의 감성, 뮤지컬적 요소와 뮤지션, 모델, 댄서가 함께 어우러져 디지털 기술을 통해 런던과 상하이를 하나로 연결해주었다. 버버리의 아이코닉한 트렌치에 대한 짧은 영상과 함께, 공연장이 런던의 모습과 상하이의 스카이라인이 겹치면서 공연의 시작을 알렸다. 시네마 스크린이 올라감과 동시에 벨벳 커튼이 펼쳐지면서 영국 뮤지션 조지 에즈라(George Ezra)의 'Did You Hear The Rain?'이 울려 퍼졌고, 이어서 버버리 트렌치코트와 버버리 테일러링 수트를 입은 댄서들이 특별히 준비한 안무를 선보였다. 영국 DJ 게리 포웰(Gary Powell)은 타악기 연주와 함께 우산 왈츠의 로맨틱한 멜로디를 선보이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태풍을 연상케 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에드 하코트(Ed Harcourt)는 이번 이벤트를 위해 특별히 현정환 곡인 'You Can't Stop The Rain'을 라이브 공연으로 선보였다. 이어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인 영국 뮤지션 에드 하코트는 카라 델레비인, 수키 워터하우스와 친 슈페이 등 버버리 블룸즈베리 걸스(The Bloomsbury Girls: AW14이 테마)를 소개했다. 또한 의상과 핸드백의 핸드 프린트 패턴으로 가득 찬 공연장에서 영국 뮤지션 팔로마 페이스(Paloma Faith)는 'Only Love Can Hurt Like This'를 선보였다.

이번 공연의 음악 작업에는 영국 뮤지션들이 참여했으며 또 이 모든 공연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어 화제를 모았는데, 시나웨이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바인(Vine), 구글 플러스와 위챗(WeChat) 등을 통해 고객들이 런던에서 상하이에 이르는 이벤트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버버리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플랫폼인 위챗과 두 번째 파트너십을 맺어 버버리의 팬들과 상호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프로젝트도 선보였다. 모바일상에서 가벼운 흔들림과 터치로 실감 나게 행사를 관람할 수 있었으며, 이 화면은 360도로 펼쳐지면서 디지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주는 진정한 인터랙티브 공연을 선보였다. 클래식한 헤리티지의 가치 이상으로 미래를 중요하게 여기는 브랜드인 버버리는 이번 행사에서도 역시 많은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런던의 헤리티지는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또 다른 헤리티지를 만들어갈 준비된 패션 브랜드로서 브랜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시간으로 느껴졌다. 클래식한 런던의 매력, 상하이의 다이내믹한 에너지, 그리고 전 세계인들과 소통하는 테크놀로지. 이 완벽한 조화가 버버리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이유다. 문의 버버리 홍보팀 02-3485-6583



1 버버리의 트렌치코트를 입은 영국 출신의 팝 모델 카라 델레비인이 관객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로맨틱한 퍼포먼스로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2, 4 버버리 트렌치코트와 테일러링 수트를 입은 댄서들이 특별한 안무를 선보였다. 3, 5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는 가운데 2014 F/W의 테마인 버버리 블룸즈베리 걸스(The Bloomsbury Girls) 연재가 펼쳐졌다. 6 디지털을 통해 전 세계 버버리 공연을 관람하는 모든 사람들을 오프라인과 연결했다. 7 중국 상하이의 캐리 센터(Kerry Center)에 영국적인 고급스러움을 반영한 버버리 플래그십 스토어가 오픈했다. 이번 캐리 센터 버버리 플래그십 스토어는 런던의 121 리젠트 스트리트 매장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다.

inpres C's
Stylish Yamaha Golf



www.YAMAHAGOLF.co.kr TEL : 02)582-5004

perfectly Elegant

최고의 골프 컬렉션으로 전 세계 골퍼들의 변함없는 신뢰를 얻어온 타이틀리스트가 캐디 백과 보스턴 백, 쇼퍼 백 등으로 구성된 프리미엄 컬렉션을 새롭게 출시했다. 브랜드의 훌륭한 유산을 담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소재, 합리적인 가격까지 겸비한 프리미엄 컬렉션은 한정판으로 선보이기에 그 가치를 더한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타이틀리스트의 헤리티지를 담은 프리미엄 컬렉션

1935년 론칭한 이후 과학적인 설계와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골프 브랜드의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한 타이틀리스트, 80여 년 역사의 풍부한 헤리티지와 고집스럽게 이어온 장인 정신,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시즌 프리미엄 컬렉션을 새롭게 출시했다. 단순히 고가의 라인이라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품격 있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최상의 품질은 이어가되, 합리적인 가격을 겸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모든 컬렉션은 골퍼들의 수준 높은 안목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년간의 연구를 거쳤다는 점에서 믿음을 더한다. 명품에 견줄 만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이 특징인 업계 최초의 프리미엄 제품 개발 시도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타이틀리스트의 탄생 연도인 1935년에서 영감을 받아 골프에 바쳐온 헌신과 열정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프리미엄 컬렉션에 'est.1935'라는 이름을 붙였다. 모던 레트로를 콘셉트로 한 이번 시즌엔 프리미엄 컬렉션의 첫 출시를 기념해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블랙과 딥 레드를 대표 색상으로 선택했다. 고급 나파 소가죽을 적용한 레더 컬렉션과 엔지니어드 패브리 워단의 자카드 컬렉션 등 두 가지 라인, 특히 나파 가죽은 최소한의 가공만 거쳐 최상급 풀 그레인(full grain) 가죽을 사용해 가죽 표면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유연하게 만들었다. 패션 하우스에서 이전부터 선보여 온 자카드 소재를 접목했다는 점도 새롭다. 가죽과 자카드 모두 내구성이 강해 오랫동안 써도 오염과 변형, 마모가 거의 없다는 장점도 갖추었다. 캐디 백과 보스턴 백, 쇼퍼 백을 비롯해 클러치 백, 파우치, 머니 클립 등 풍성한 제품군은 필드뿐만 아니라 골퍼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품격을 더해준다. 모든 공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하기에 우려한 곡선과 완성도가 남다르다는 점을 한눈에 알아챌 것이다. 프리미엄 컬렉션 홈페이지(est.1935.titleist.co.kr)에 접속하면 다양한 제품을 살펴볼 수 있다. 문의 02-3014-3800 **에디터 이예진**

(왼쪽부터 차례대로) 프리미엄 컬렉션의 레드 자카드 캐디 백과 블랙 레더 캐디 백, 우산 홀더는 물론 골프 볼과 티 등을 수납할 수 있는 4개의 기능성 포켓이 돋보인다. 2개의 보스턴 백 중 왼쪽에는 남성용 블랙 레더 보스턴 백이, 오른쪽에는 핸드메이드 태슬, 키 체인이 포인트인 레드 보스턴 백이 있다. 아래쪽에 놓인 자카드 프리미엄 컬렉션의 레드 토트백은 수납공간이 세분화되어 실용적이다. 함께 놓인 클러치 백과 파우치, 머니클립은 프리미엄 자카드 컬렉션의 액세서리.



당신만의 여유와 품격, 바디프렌드



프레지던트
월 79,500원 (39개월 약정)

www.bodyfriend.co.kr



전국 어디서나 1600-2225

NAVER

바디프렌드

BODYFRIEND



이이로보
월 49,500원 (39개월 약정)



이이로보S
월 54,500원 (39개월 약정)



유티마스
월 69,500원 (39개월 약정)



프레지던트
월 79,500원 (39개월 약정)



팬텀
월 119,500원 (39개월 약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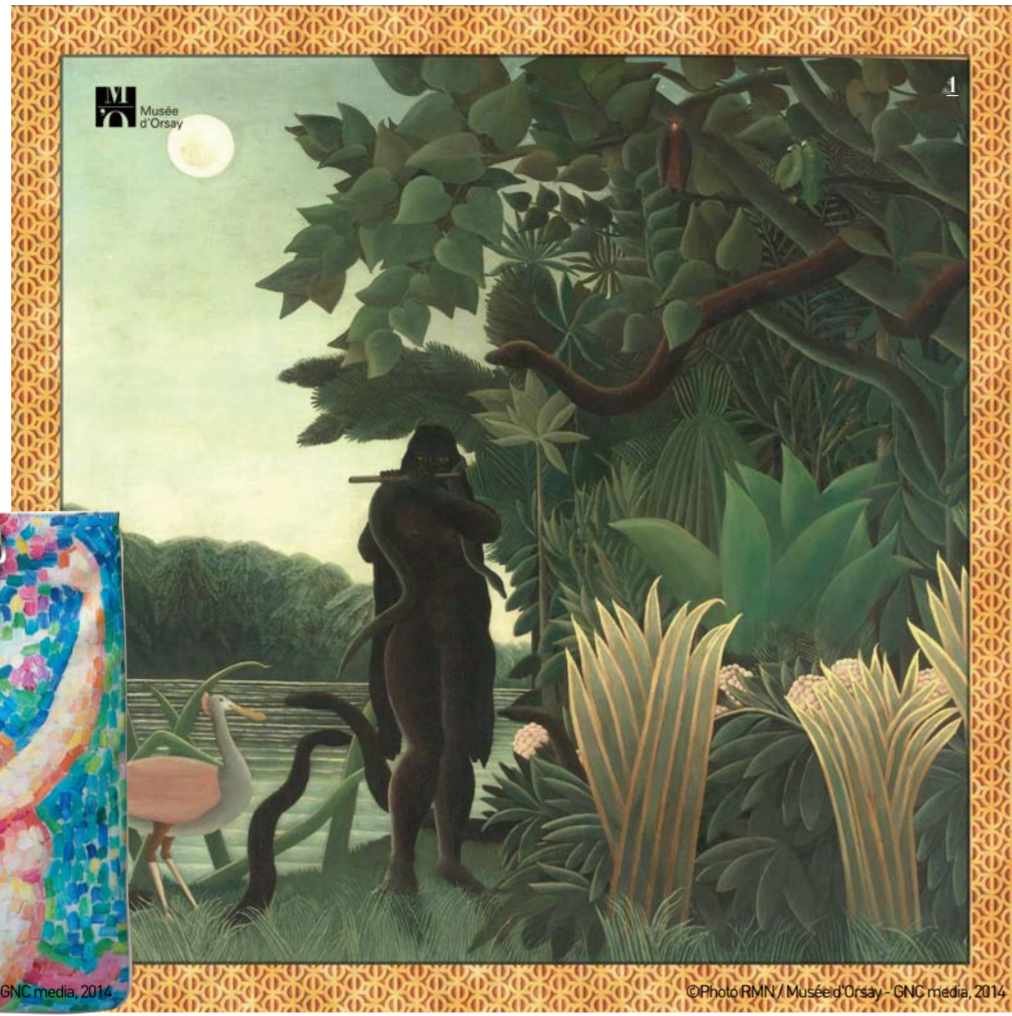
(주)바디프렌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40-15 바디프렌드타워 | 대표번호 02-3448-8880 | 팩스 02-3448-8883
 서울 압구정점 02-3448-4789 서초점 02-3487-4739 강변테크노마트점 02-456-8880 노원점 02-3392-5222 동대문점 02-764-2006 신촌점 02-719-8880 목동점 02-6925-6388 신도림테크노마트점 02-664-4008 송파점 02-448-2225 용산점 02-2012-2140
 인천 부평점 032-518-8880 남동점 032-429-5262 | 경기 동탄점 031-898-9207 분당점 031-715-8885 안양 · 군포점 031-429-8885 일산점 031-904-2433 부천점 032-715-5785 파주점 031-945-8880 광고점 031-216-8880 | 대전 대전점 042-822-6273
 충청 청주점 043-236-8260 | 부산 부산시하점 051-294-2030 부산센텀점 051-784-8881 부산교대점 051-866-8532 부산덕천점 051-336-9880 | 울산 울산점 052-267-0760 | 대구 대구달서점 053-524-8880 대구유통단지점 053-384-9309 대구수성점 053-746-8881 | 포항 포항점 054-278-9162 | 광주 광주금호월드점 062-350-8066 광주첨단점 062-417-8880 | 전북 전주점 063-237-5315 | 전남 순천점 061-721-2286 | 강원 춘천점 033-254-8880 | 제주 제주점 064-747-8880

the art of Collaboration

'세기의 수도로 칭송받던 근대 도시 파리의 아름다운 시절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전시회 <오르세 미술관-인상주의, 그 빛을 넘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 패션 브랜드 루이까또즈는 프랑스에 바탕을 둔 브랜드답게 그동안 꾸준히 펼쳐온 컬처 마케팅 차원에서 이 전시회를 후원하면서, 대기들의 명작을 깔끔하게 담아낸 스카프와 백으로 구성된 아트 콜라베이션 작품 '오르세 라인'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듯이, 브랜드의 노하우가 녹아든 소품을 명작의 정수를 그대로 간직한 '그릇'으로 간결하게 활용했다는 점에서 기본 좋은 콜라베이션이라 할 수 있다.

패션 브랜드의 격을 한층 높이는 무기로 요즘 널리 선호하는 '아트(art)', 비눗갑 위에 명화를 프린트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그 제품을 고급스럽게 느낀다는 마케팅 실험 결과가 있을 정도로 '예술의 오라'는 강력하다. 그리하여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아트 콜라베이션을 너도나도 도입하는 현실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건 꽤 만만찮은 과제다. 아트 콜라베이션에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협력 대상인 아트나 아티스트의 본질을 부각시키는 '상생의 미학'이 제대로 빛을 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패션 브랜드 루이까또즈는 이런 점에서 상당히 심지 있게, 일관성이 엮이는 컬처 브랜드임을 과해왔다. '이 지적 우아함'이라는 브랜드의 정체성과 맥을 같이하도록 음악, 영화, 전시 등 다양한 예술 영역에서 꾸준한 문화 마케팅을 펼쳐온 것이다. 특히 프랑스에 뿌리를 둔 브랜드답게 2008년 퐁피두 특별전 <화가들의 천국>을 후원하며 당시 전시 작품을 활용한 한정판 핸드백을 내놓고, 2012년에는 사진작가 김중만 씨 르네 마그리트에 대한 오마주 작품으로 직접 디자인한 감각적인 가방과 스카프를 선보이는 등 전략적 방향성이 담긴 결과물을 탄생시켰다.

올해 루이까또즈의 창의성에 바탕이 되는 것은 한국인들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인상파'와 그 뒤를 잇는 유명 화가들이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성황리에 열리고 있는 <오르세 미술관-인상주의, 그 빛을 넘어>의 실제 전시(www.orsay2014.co.kr) 작품을 녹여낸 '오르세 라인(Orsay Line)'이 바로 그 결실이다. 먼저 앙리 루소(Henri Rousseau)의 '뱀을 부리는 여인', 앙리-에드몽 크로스(Henri-Edmond Cross)의 '요정들의 추방'을 담아낸 듀엣 백 2종, 2명의 앙리를 동원한 이 백들은 체코기 원단을 사용해 구김과 틀어짐을 보완하고 오염과 이염을 방지하는 데도 역점을 뒀다. 실제로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품으로 꼽히는 앙리 루소의 작품을 택한 건 탁월한 선택인 듯하다. 전시 공간의 마지막 방을 지키고 있는 이 그림은 창백한 달 아래 검은 여인을 조형물처럼 등장시킨 신비한 분위기가 관람객의 발걸음을 오래도록 멈추게 한다. 사실주의와 인상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등장한 상징주의 화가에 속하는 앙리 루소는 독학으로 그림을 배웠는데, 파리에서 평생을 살았으면서도 동식물의 세계를 놀랍도록 대범하고 동환적으로 표현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한 작가다. 두 번째 백은 또 다른 앙리의 작품인 '요정들의 추방'을 바탕으로 한다. 색채를 조화롭게 다루는 앙리-에드몽 크로스의 이 그림은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이상향을 연상케 하는데, 스테판 말라르메가 쓴 장편 시 '목신의 오후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조르주 쇠라를 필두로 한 신인상주의 작가에 속하는 앙리-에드몽 크로스의 점묘 기법이 인상적이다. 오르세의 명화들을 프린트한 3종의 스카프도 회화적 예술성이 좀 더 부드럽게 잘 살아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우선 앙리 루소의 '뱀을 부리는 여인'을 스카프 버전으로도 선보였으며, 나머지 2종은 또 다른 상징주의 예술가 샤를 빅토르 기유(Charles Victor Guillaux)와



대표적인 인상파 화가인 오귀스트 르누아르(Auguste Renoir)의 작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샤를 빅토르 기유의 작품 '석양은 노란색, 녹색, 창백한 푸른색까지 섬세한 색의 변화와 함께 은백양나무로 추정되는 검은 식물 테마의 그림자와 구름 낀 하늘의 대조가 우아하면서도 강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파리의 유대계 상류층 자제를 담아낸 르누아르의 초상화 '어린 시절의 페르낭 일팡'은 흥상으로 표현한 소년의 새하얀 피부와 빨간색 배경, 그리고 남색 의상의 대비가 인상적인 아름다움을 뽐내준다. 오르세 라인 5종은 이번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아트숍은 물론이고 온라인 직영몰(www.louisclub.com), 지정된 루이까또즈 매장, 그리고 오는 8월 말에는 스카프 전시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한다. 19세기에 '세기의 수도'로 거듭날 만큼 확장한 파리가 20세기를 향해 가면서 겪은 다채로운 변화를 당대 최고 작가들의 작품 세계로 접할 수 있는 기회인 오르세 미술관전. 여기에 과도한 손길을 휘둘러 명작의 진정성을 해치지 않고 브랜드의 주요 품목인 가방과 스카프라는 소품으로도 그 변화의 본질을 느껴볼 수 있도록 색다른 의미를 살짝 엿었다는 점에서 루이까또즈의 오르세 라인은 아트 콜라베이션의 핵심을 간직하려는 노력이 엮여 보이는 결과물이다. 에디터 고성연



1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오르세 미술관-인상주의, 그 빛을 넘어> 전시 작품인 앙리 루소(Henri Rousseau)의 '뱀을 부리는 여인'을 활용한 루이까또즈 스카프. 이 작품을 프린트한 가죽 백도 함께 선보였다. 2 신인상주의 화가 앙리-에드몽 크로스(Henri-Edmond Cross)의 '요정들의 추방'을 담아낸 가죽 백. 3 컬처 마케팅 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루이까또즈의 2009년 아트 콜라베이션 작품. 4 2012년에는 사진작가 김중만 씨 르네 마그리트에 대한 오마주 작품으로 직접 디자인한 감각적인 가방과 스카프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타리 직수입 통물드
100% 천연리텍스

퀸 (100% 천연 리텍스)
20cm 49,900원
16cm 39,900원

퀸 (일반 리텍스)
14cm 24,900원

슈퍼싱글 (일반 리텍스)
14cm 21,900원

프레임 추가시 (크림/초코/브라운)
월 15,000원 추가
39개월 약정

NAVER

라클라우드

구름 위의 달콤한 꿈, 라클라우드

La Cloud
MILANO

렌탈문의 1600-2225 | www.lacloud.co.kr

SPECIAL EVENT COUPON



<스타일 조선일보>와 루이까또즈가 함께하는 스페셜 이벤트

<스타일 조선일보> 한정 단독 쿠폰을 자칭하고 루이까또즈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님께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정상 상품에 한해 최대 20%까지 중복 할인 가능)

◆ 기간 2014년 6월 한달간 ◆ 해당 매장 전국 백화점 루이까또즈 핸드백 매장(아웃렛, 면세점 제외) ◆ 문의 080-725-7272

* 1인 1회 한정 수량으로 중복 증정하지 않으며 선착순 증정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Majestic scenery

'계수나무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곳'이라는 뜻을 지닌 중국 계림. 아름다운 절경과 흥미로운 문화가 살아 있는 휴거지를 찾는다면 4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계림은 어떨까? 특히 계림에는 여행의 번거로움을 크게 덜어주는 시스템으로 유명한 클럽메드 리조트가 자리 잡고 있기에 매력적이다. 아블리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로 선보인 클럽메드 계림 리조트는 천혜의 자연과 더불어 풍성한 먹을거리와 다채로운 활동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내가 보기에 우리가 여행을 하고 낯선 것을 바라보고 체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인간성이 꿈꾸는 이상을 찾아가는 것이다. .by 헤르만 헤세

독일계 스위스인인 대문호 헤르만 헤세는 낯선 여행자가 되는 시간을 무척 사랑했다고 한다. 작가로서 명성을 얻은 뒤 안정된 생활에 관태를 느낀 그는 한때 1년에 5~6개월씩 긴 여행을 떠났도 했다. 1세기가 흐른 오늘날의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이처럼 훌쩍 여행을 떠나 친한 듯 돌아올 수 있는 심적·시간적·금전적 여유를 전부 갖추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현대인들 중에서도 낯선지만 아름다운 타지에서 대자연과 호흡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대상을 바라보며, 인간이 일궈낸 문화의 가치를 영혼으로 흡수하며 사해동포주의에 대한 신념을 기운 헤세처럼 여행의 본질을 대하는 이는 분명 많을 것이다. 헤세는 한 책에서 "내 눈앞에 실제로 펼쳐진 산과 숲이 아름다운 그림책 속에서 봤던 것 보다 훨씬 더 변화가 많고 친밀한 것임을 보았다"며 여행을 예찬했는데, 이처럼 현실이 상상을 압도하는 빼어난 산과 숲을 자랑하는 곳이 그다지 많지 않은 곳에 있다. 바로 동양화 속 풍경을 무색케 하는 중국 계림이다.

자연과 문화가 맞닿는 매혹적인 여행지, 계림

중국 남서 지역 광시족자치구에 자리 잡고 있는 계림은 웅장함과 신비함을 겸비한 카르스트 지형 특유의 봉우리들과 유유히 흐르는 이강(The Li River), 아름답게 펼쳐진 계단식 논 등 어느 곳에 시선을 두더라도 감탄사를 내뱉게 하는 절경으로 유명하다. 계림의 산수는 천하 제일(桂林山水甲天下)이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는가? 여행지 후보로 이곳을 정찍하던 세계적인 프랑스 리조트 그룹인 클럽메드의 계림 리조트를 고려해볼 만하다. 이 리조트는 무엇보다 계림의 수려한 경치와 독특한 문화유산을 조화롭게 체험하는 데 역점을 둔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일단 건물 자체가 드넓은 현대조각공원 내에 위치하기에 오가며 자연스럽게 1백50여 점의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또 현지 아티스트들과 함께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보는 아트 클래스(추가 요금 발생, 사전 예약 필수)를 경험할 수 있는데, 도자기 공예, 비즈 도자이크, 핸드메이드 바누, 중국 서예 등 그 분야도 다채롭다. 물론 비갈 풍경은 훨씬 더 예술적이다. 배를 타고 병풍 처럼 펼쳐진 빼어난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이강 투어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 무대에서 펼쳐지는 장미여우 감독이 연출한 수상 공연인 '인상유상(저는 돈이 아깝지 않은유료 서비스)' 마스터로 꼽힌다. 더불어 현지 주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세외도원과 외국인들의 거린인 웨스트 스트리트도 계림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로 여겨진다.

누과 허가 즐거운 내실 있는 리조트

보는 이를 압도하는 대자연과 문화의 만이 인상적인 만큼 클럽메드 계림 리조트의 디자인도 이를 모티브로 삼고 있다. 호미(Homal) 객실동에 마련된 객실은 중국의 전통 스타일을 모던하게 재해석한 디자인, 카르스트 지형에서 영감을 얻은 동물 시리즈 등 총 5개의 디자인 콘셉트로, 자마다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 또 계림의 풍광을 콘셉트로 한 코트 야드(Courtyard) 객실동은 모든 객실에서 중앙 정원과 리조트를 둘러싼 산,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아무리 볼거리가 많아도 식도락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법. 클럽메드답게 전 일일 뷔페식 식사가 제공되는 메인 레스토랑에서는 스낵, 광둥과 하이난 지역 요리, 그리고 각국의 요리를 제공해 입맛과 취향에 따라 메뉴를 고를 수 있다. 중국 현지 별미를 체험할 수 있는 스페셜티 레스토랑도 마련되어 있고, 늦은 밤까지 운영되는 누들 바(Noodle Bar)에서는 중국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면 요리를 접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 오픈한 몽골관인 바비큐 레스토랑은 360도로 펼쳐진 리조트 외부 전경을 바라보며 여덟 가지 소스의 바비큐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장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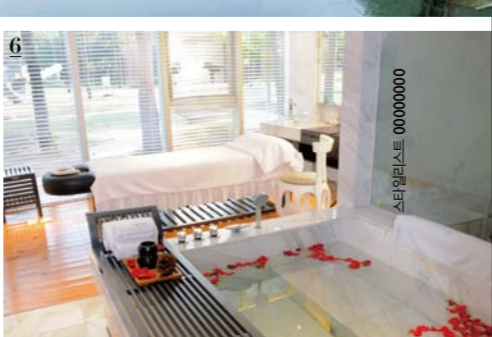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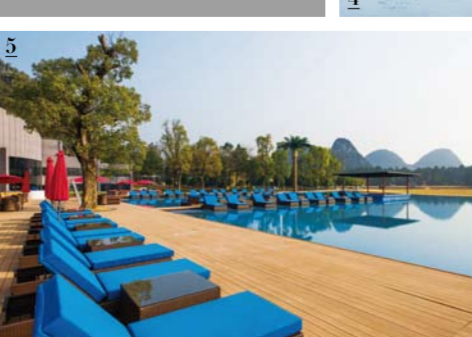
부모도 아이도 즐길 수 있는 '체험의 세계로'

사실 아무리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많아도 어린 자녀를 동반한 부모는 힘겹기 마련이다. 아무리 눈앞에 절경이 펼쳐져 있다 해도 내 손발이 묶여 있으면 재미가 반감되기 마련이니까. 클럽메드 리조트의 강령인 키즈 클럽은 바로 이러한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이다. 이유식, 젓병 소독기 등 아기에게 필요한 용품을 제공해주는 베이비 헬름 서비스부터 파티 클럽(만 2~3세), 미니 클럽(만 4~10세)으로 구성된 키즈 클럽에서 아이들은 연령대가 비슷한 각국의 친구들과 함께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파티 클럽은 유료 서비스). 클럽메드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전환후 도우미인 G.O(Gentle Organizer, 리조트 상주 직원들이 아이들을 세심하게 보살핀다. 어린이들들에게서 잠시 해방된 틈을 타 휴식을 취할 수도 있지만 도조해볼 만한 활동도 많다. 클럽메드 계림 리조트에는 중국의 문화와 자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랜드 스포츠가 마련되어 있다. 전통 무술 타이치, 마운틴 바이크, 공중그네, 줌바, 폴 댄스, 요가, 양궁, 암벽 등반, 골프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초보자를 포함해 수준별 강습이 준비되어 있다. 그 밖에도 피트니스, 농구, 발리볼, 탁구 등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특히 근사한 전경을 바라보며 수영을 할 수 있는 리조트 내 수영장은 중국 최초의 자연수 풀이다. 에더터 고희연



<여름휴가 BIG BONUS 2 프로모션을 통해 떠나는 클럽메드 계림 리조트>

6월 황금연휴와 여름휴가, 그리고 추석 연휴까지 여행을 떠날 기회가 풍성한 2014년, 클럽메드에서는 '여름휴가 BIG BONUS 2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6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출발하는 일정의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들은 숙박과 항공이 모두 포함된 에어 파크 지를 성인 1백 17만 원(세금 포함)부터 만나볼 수 있다(공항공제, 유류할증료 포함). 해당 프로모션은 클럽메드 중국 계림, 일본 카바라 비치, 인도네시아 발리, 핀란드 아일랜드, 태국 푸켓, 말레이시아 체라팅 비치, 그리고 월드브 카니 등 총 7개 리조트에 한해 진행된다. 예약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문의 클럽메드 홈페이지(www.clubmed.co.kr) 예약 02-3452-0123



Be Sportive

동물적 느낌이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가죽 블루중, 손으로 그린 스트라이프, 실크 톱... 집(gym)에서나 볼 수 있었던 새로운 스포츠 스타일링이 이번 시즌, 유난히 눈길을 끈다. *photographed by driu+tiago*



코트보어 재킷, 짧은 포플린 화이트 셔츠, 쇼츠, 샌들 모두 미우미우. 목걸이 랑방.

실크 슬리브리스 톱과
코튼 버뮤다팬츠 모두
조르지오 아르마니.



카다란 메탈 핀칭 디테일이 포인트인
코튼 재킷, 뒤에서 고정하는 톱,
코튼 팬츠 모두 **살바토레 페라가모**.

두 겹 슬리브리스 롱과 팬츠
모두 스포트맥스.



화이트 티셔츠, 넓은 포플린 팬츠,
벨트 모두 샵린느.

네오프렌 재킷,
오버사이즈 팬츠, 코튼 니트
모두 엘포리오 아르바니.



나미카죽 재킷과 실크 조깅 팬츠
모두 펜디. 메탈릭 샌들 마르니.



헤어 Olivier de Vriendt
메이크업 Helene Vasnier
모델 Luca Gajdos(IMG)
어시스턴트 Francesca Bona
스타일리스트 Paolo Turina

summer Smart Diet

매일 1시간 동안 러닝 머신 위를 달리고, 6시 이후에 야식을 참아주며 한 달에 2kg 감량하기도 어려운 여성들에게, 일주일에 20분의 투자만으로, 혹은 진공 상태에서 갖는 것으로 날씬해질 수 있는 최신 다이어트 솔루션을 <스타일 조선폰보> 에디터가 직접 체험해본 후 상세히 소개한다. 여기에 안전하고 간단한 시술 몇 가지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보디라인은 드라마틱하게 달라진다.



GPA 장비를 이용해 현재 체형을 파악하고 교정해야 할 부분을 입체적으로 진단한다.

Part 1 체형 교정을 위한 엑서프리 + 부종 개선에 탁월한 충격파 요법

엑서프리 체형 교정으로 셀룰라이트를 잡아라

무조건 걷고, 뛰고, 굶으면서 살을 빼기만 하면 전지현 몸매가 될까? 팔뚝이 울퉁불퉁해지고 등에 살이 쪼서 두꺼워지는 것 역시 모두 자세의 문제라면? 에디터 역시 작년 여름, 7kg을 감량하고 다행히도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 막부가내로 살을 빼는 것을 넘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는 생각에 비단 치료로 유명한 청담동 린 클리닉의 체형 교정 센터인 엑서프리를 찾았다. 지난여름 다이어트 트렌드를 이끌며 놀라운 인기를 얻은 병원에서 왜 체형 교정 센터까지 열게 된 걸까. 린 클리닉의 김정현 이사는 “시술만으로도 살을 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애초에 왜 그곳에만 지방과 셀룰라이트가 쌓였는지를 근본적으로 짚어보아야 합니다. 다리를 꼬거나 어깨를 움츠리는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틀어진 자세를 통해 근막염증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셀룰라이트의 씨앗이에요. 즉 체형을 바로 세우지 않는 한 셀룰라이트는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이미 생겨버린 셀룰라이트를 장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제거하고, 그 진행을 멈추고 예방하기 위해 체형 교정 운동이 필요합니다. 보디라인이 아름다워 보이는 황금 각도를 찾기 위해서는 체형 교정이 필수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 에디터는 지난해 이곳에서 고주파와 체외 충격파 시술을 결합한 마케팅 필 시술을 받아 체중 감량에 성공했기에, 운동 처방으로 체형을 교정해준다는 엑서프리에도 기대가 컸다. 일단 호텔 피트니스 센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시설이 뛰어난데, 모든 치료는 1:1로 이루어진다. 프라이빗한 공간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제격. 이곳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은 첨단 GPA 장비를 이용한 자세 분석. 서 있는 자세부터 걷는 모습까지 객관적으로 측정하는데, 결과는 상상 이상이다. 목이 앞으로 빠지는 거북 목 증후군과 골반 틀어짐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발목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발바닥 전체로 터벅터벅, 심지어 오른쪽만 팔자로 걷는 모습은 왜 한쪽만 신발이 닳는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 이렇게 잘못된 생활 습관이 만들어낸 부정렬 증후군은 결국 셀룰라이트 형성으로 이어지고 매편러운 보디라인은 남의 일이 된다. 보형 교정을 시작으로 코어 근육 강화 운동, 밸런스 운동, 필라테스는 물론 평소 앉아 있는 자세까지 꼼꼼히 짚어주는 전문 운동 처

방사의 진단과 관리하는 집중적이며 사소한 습관도 체크된다. 막 걸음마를 떤 아이처럼 뒤꿈치로 시작해 엄지발가락으로 힘이 이어지도록 걷는 연습을 하는데, 10분만 걸어도 어색하고 1시간 운동한 것만큼 땀이 난다. 쉽게 고쳐지지 않을 듯하지만 의외로 보형 교정은 연습한 만큼 효과가 있고, 엉덩이와 골반에 힘을 주며 걷는 법도 익히게 된다. 필라테스와 슬링을 통해 집중적으로 어깨 라인을 교정하는데, 신기하게도 2회 정도만으로도 어깨가 눈에 띄게 편다. 엑서프리 체형 교정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처방은 일반적인 운동과 다르다. 운동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형에 필요한 운동을 처방받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습득하고 인지한다. 뇌에 올바른 자세를 입력하는 것이다. 목적 없이 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해 러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실제 운동 시간은 1시간이지만, 각 종목별 운동 처방사와 번갈아가면서 부위별 운동을 하면 짧은 시간에 몇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빠른 체형 교정을 위한 시너지 처방, 체외 충격파

체형 교정에 더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체외 충격파다. 이 시술은 처음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처럼 짜릿한 경험을 선사하는데, 시술받자마자 거짓말처럼 어깨와 다리가 순식간에 가벼워지기에 최근 연예인들에게도 인기가 있다. 한 번의 시술만으로도 부종이 사라지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다. 체외 충격파 시술은 근막의 염증을 치료하는 원리로 주사를 맞거나 외부적인 시술을 가하는 것이 아닌, 마치 물리치료처럼 피부 표면에 충격파 발생기를 문질러 시술 부위의 유착을 풀어주고 염증을 치료한다. 근육이 유착되고 움직임이 둔한 부위는 해당 부위에 흘러야 할 혈액과 림프의 움직임이 막혀 있어 그 부위에 피하지방이 고이게 된다. 체외 충격파를 이용해 이 염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하면 인대와 관절에 들러붙은 근육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급속 체형 교정이다. 일반적으로 엑서프리 운동만 4주 실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체외 충격파와 병행하면 1~2주 만에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시너지가 높다. 체외 충격파와 엑서프리로 자세를 교정해 관절이 열리면 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고여 있는 병든 살, 즉 셀룰라이트의 드라마틱한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만성적인 하체 부종으로 고생하던 에디터는 이 시술의 마니아가 되었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 체외 충격파는 일주일에 1회 시술 가능하며, 엑서프리 운동 처방은 일주일에 2~3회 4주 프로그램으로 체형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엑서프리 1시간 18만원, 체외 충격파 1회 30만원부터. 문의 02-3448-3332(린 클리닉) 에디터 배미진

Part 2 쉽고 빠른 하체 운동 하이폭시 + 매끈한 하체 라인을 위한 한방 바디 매신

저강도 유산소운동, 하이폭시로 하체 집중 공략하기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지난 2년간 제로에 가까운 운동량,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먹는 생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더 쪼는다는 말을 위로받고 모든 술을 관대하게 받아들인 생활 습관은 복부와 허벅지에 2kg 가까운 지방 덩어리를 남겼다. 겉보기에는 그다지 티가 나지 않아 “네가 무슨 다이어트냐”는 말도 제법 듣는 편이지만 바뀐 몸 상태는 내가 가장 잘 아는 법. 아끼던 프린트 팬츠와 스키니 진을 멀리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감지되었다. 일단 불어난 것만 해결하면 속이 시원하겠다고 생각하던 와중에 만난 ‘하이폭시(HYPOXI)’는 하체에 집중된 셀룰라이트와 지방을 강도가 약한 유산소운동으로 해결하는 신개념 운동이다. 가장 빠기 어렵다는 하체를, 그것도 힘들지 않고 뺄다는 콘셉트는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제안이 아닌가! 일찍이 전 세계적으로 40여 개국, 2천여 곳 이상의 스튜디오에서 40만 명의 회원이 경험하고, 로비 웰러스나 마돈나 등도 이용하는 검증된 운동이라는 점도 솔깃하다. 운동의 과정은 이렇하다. 먼저 인바디 측정과 허리, 허벅지, 종아리 등 사이즈를 잰 후 담당 코치에게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기구를 처방받는다.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더폴로지로 시작하는데, 20분 동안 누워 있거나 하면 셀룰라이트와 부종을 없애주고 혈액 순환을 원활히 해 지방이 잘 타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기특한 운동. 코치의 도움을 받아 우주복을 연상시키는 커다란 특수 수트를 낀 채로 입고 누운 후 수트 안에 있는 공기를 완벽하게 빼 밴드로 단단하게 고정했다. 호스를 연결하면 4백 개의 압력 챔버방이 몸에 압력을 가하고 진공상태를 만들면서 피부 조직을 늘었다 압축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 다음은 볼록 나온 아랫배,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의 복잡한 인고민을 해결하는 진공 사이즈를 겨우 ‘S120’으로 이어졌다. 심박과 온도 센서를 단 후 갈매기처럼 생긴 웃을 허리에 차고(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챔버에 들어가 진공과 압박이 번갈아 이루어지는 동안 사이클을 뒀다. 밖에서 봤을 때 우아하게 앉아 있는 듯 보이지만 안에서는 따나게 페달을 돌리는 형국. 진공상태에 선 그냥 자전거를 뒀을 때보다 강도가 2~3배 높아지고, 6시간이나 효과가 지속되지만 힘들기는커녕 언제 30분이 갔는지 모를 정도다. 주의할 것은 2시간 동안 물만 마시고, 4시간 동안 간단배달만 섭취해야 한다는 점. 운동 전 반드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다. 2주가 지난 지금, 식단이 무너져 정확히 결과를 말할 순 없지만 하체가 전반적으로 탄탄해졌다고 할까. 허벅지에 힘을 주면 근육이 갈라지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주 3회 2개월 24세션 2백40만원. 문의 02-3474-5275(하이폭시 청담 스튜디오)

완벽한 하체 라인을 만드는 바디 매신

하이폭시에 힘을 실어줄 바디 매신은 체내에 들어간 약실이 녹으면서 피부 아래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생성되는 층을 지속적으로 자극해 슬림한 라인을 만드는 시술. 풍동하지 않고 탄력을 유지한 비키니를 입었을 때 적나라하게 보이는 허벅지 안쪽 셀룰라이트와 팬티 라인 위로 살짝 두드러진 부분만 해결하기에 적합하다. 지난해 얼굴에 녹는 실을 넣어 탄력을 끌어올리는 브이 리프팅이 만족스러웠던 터라 기대감이 컸다. 활처럼 늘어진 팔뚝, 층을 이루는 러브 핸들, 허벅지 등 셀룰라이트가 뭉쳐 지방이 자리 잡은 부위라면 어디든 가능하지만 하체에 올린다는 심정으로 엉덩이부터 허벅지로 내려오는 라인, 종아리를 선택했다. 동맥비츠한의원 정미림 원장은 “근육이 적지 않은 체형에 지방과 셀룰라이트가 골고루 발달했어요. 허벅지 앞쪽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온 곳과 무방비로 방치된 허벅지 안쪽 살, 무너진 히프 라인은 매신 침으로 끌어올린 후, 정제되어 있는 셀룰라이트가 흩어지도록 산상 약침 주사를 맞는 게 좋겠네요”라고 진단했다. 약침 주사를 맞기 전에는 지방세포를 분해하기 쉽게 만드는 리포틴 초음파가 추가되었다. 마치 연고를 바르고 20분 후 시작하는데, 워낙 시술에 나서하기를 하고 긴장을 했던지라 빠른듯 통증이 이어졌다. 3~4일은 부기와 주사 자국이 동반되며, 하이힐을 신기도 어려울 만큼 종아리 근육이 땅졌다. 이 기간만 잘 버티면 부기가 점점 빠져지면서 사이즈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다. 2주 간격으로 네 번이나 받아야 하지만 여러 번 반복되는 따끔한 통증만 참는다면 예뻐진다니 이른 게 대수랴. 전체적으로 살을 빼고 싶거나, 드라마틱한 효과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이 매신 요법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운동을 하는데도 끝까지 없어지지 않는 셀룰라이트나 특정 부위의 지방을 수술이 아닌 시술로 해결하고 싶은 이들에게는 분명 만족할 만한 선택일 것이다. 바디 매신은 하체 운동을 함께 했을 때 더 효과를 볼 수 있기에 하이폭시를 병행하면 2개월 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무척이나 기다려진다. 부위별로 4회 기준 1백20만원~2백만 원대. 문의 1644-4712(동맥비츠한의원) 에디터 이예진



몸매와 인력이 교차하는 챔버에 들어가 사이클을 타는 운동기구 'S120'.

Part 3 일주일에 단 20분 마이크로 트레이닝 + 팔뚝 라인을 잡는 클라투와 바디실

단 20분간의 투자로 6시간의 운동 효과를



자주파기 효과는 EMS 기계에 특수 수트를 연결해 운동 효과를 높이는 마이크로 트레이닝.

근육을 이루는 섬유질을 일정 간격으로 자극해 운동 효과를 보는 운동법이다. 본래 근육을 포함한 인간의 신체 기관은 뇌에서 생체 전기와 불리는 신호를 받아 이온과 수축을 반복하며 움직인다. 흔히 병원에서 자주파, 중파라, 고주파라고 불리는 다양한 시술은 이 생체 전기를 체내에 보내 치료와 재생 효과를 얻는 원리다. 마이크로 트레이닝은 그중 자주파를 통해 뇌에서 보내는 운동 신호와 동일한 자극을 근섬유에 전달하고 숨어 있는 깊은 근육까지 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양손을 머주 준비 자세부터 시작한다. 본인에게 적절한 자극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양손을 머주 준비 자세부터 시작한다. 본인에게 적절한 자극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양손을 머주 준비 자세부터 시작한다. 본인에게 적절한 자극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겨뻑뻑한 성취감마저 든다. 효과는 운동 후 이를 동안 찾아온 엄청난 근육통으로 더욱 실감했다. 2년 전 7개월간 열심 웨이트트레이닝을 했을 때도 전혀 느끼지 못했던 엉덩이와 등의 근육통이 어깨에 없을 때보다 시달림 소리나 울 만큼 강렬하게 느껴졌다. 4주간의 체형 결과 확실시 엉덩이와 허벅지에 탄탄한 근육이 붙기 시작했다. 얼굴리, 등 라인도 훨씬 매끈해졌다. 운동을 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엉덩이와 등, 다리 라인을 예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짧은 시간 안에 이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일주일에 단 20분, 아예 시간 부족은 더 이상 핑퐁거리기 되지 않는다. 1회 10만원(비회원이), 문의 02-749-2025(마이크로 스튜디오 한남점), 02-733-2025(마이크로 스튜디오 광화문본점)

탄력 있는 팔 라인을 만든다

이런 것이 바로 나잇살이던가. 통통한 편이긴 했지만 탄력이 있어 날씬한 촉에 속하면 팔 라인이 어느새 촉촉 차기 시작했다. 게다가 운동해도 팔 라인은 더샵나지 않고 오히려 살이 붙어 고민이 날로 커졌다. 팔뚝 미니 지방 흡입으로 임시 후에도 팔뚝은 살이 찌지 않는다는 자신의 얘기에 귀가 솔깃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몸에 칼을 대는 두려움은 팔의 셀룰라이트보다 더 무섭기에 패스. 그러던 중 요즘 가장 트렌디하다는 WE 클리닉의 냉각 지방 분해술 클라투와 몸매를 보강하는 바디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다소 생소한 냉각 지방 분해술은 말 그대로 피부 속 지방세포를 영하 9°C로 얼려 지방을 서서히 파괴하는 시술이다. 매스, 주사바늘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피부에 특수한 장비를 부착해 피하지방층까지 음압으로 빨아들여 냉각시키기에 통증 없이 지방 분해 효과를 볼 수 있다. 1회 시술로 두세 달에 걸쳐 지방 분해 효과가 지속되며 체형에 따라 4주 간격으로 2~3회 반복 시술을 하면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무영 예방이 온몸에 실을 넣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몸매 라인 보장에 효과적인 바디실은 처진 팔뚝이나 무릎, 허벅지를 매끈하게 가꿔준다. 보톡스나 클라투와 같은 시술과 병행했을 때 팔뚝이 빠진다. 이는 체내에서 녹는 실을 넣어 피부의 탄력을 더하는 원리로, 지방에 주사할 경우 셀룰라이트 분해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먼저 고민되는 팔 부위에 피부 손상을 막는 젤 시트를 붙인 후 클라투 기계를 양팔에 부착한다. 이때 사서히 팔 살이 빨려 들어간 뒤부터는 수면을 취하거나 책을 읽어도 좋다. 클라투 시술이 끝난 뒤 무릎 바디실 시술을 받는다. 냉각 미처럼 상태라 주사로 쿡쿡 찌르는 따끔함은 있었지만 큰 통증은 없었다. 시술 후 결과는 말이 생기고 팔이 빠르던 것처럼 무더진 듯 얼얼한 느낌이 지속되었는데, 이는 1~2주 후 자연스럽게 사라짐으로 여름휴가를 계획하기 전 최소 2주 전에는 시술받기를 권한다. 아직도 지방이 분해되고 있지만, 2주 후부터 팔 라인에 조금씩 탄력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과정이 2~3개월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하니 여름이 되었을 때 팔 라인이 매끈해지지 않을까 한껏 기대가 된다. 클라투 부위당 1회 15만~30만원대, 바디실 부위당 1회 50만~1백만원대. 문의 02-518-0045(WE 클리닉) 에디터 권유진

Design your face

수많은 연예인과 모델의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의 화장대에는 늘 빠지지 않는 베이스 제품이 있다. 바로 다음의 파운데이션. 여자들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얼굴을 디자인하는 다음의 베스트셀러 파운데이션은 결점 없이 매끈한 피부를 연출하는 전문가들의 비밀 병기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보습보습하고 피우더리한 마무리,
메이크업 아티스트 손대상이 추천하는 스노우 파운데이션
"습은 보습과 같은 파운데이션이다. 디올스노우 화이트닝 리퀴드 파운데이션이라서 피부를 투명하고 화사하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모공까지 감추는 카바팩을 피우더리면서 완벽한 피부를 연출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완벽한 밀착력으로 메이크업이 오랜 시간 유지되어 모델 촬영을 할 때 꼭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디올의 대표 화이트닝 라인인 디올스노우에서 선보이는 화이트닝 파운데이션. 발림성이 좋고 카바팩이 우수한 것은 물론, 보습보습한 마무리감으로 결점 없이 완벽한 메이크업을 선사한다. 프레스 클로우 피그먼트가 착색한 피부 톤에 건강한 광채를 더하고, 다이아몬드 파우더가 자외선을 차단하며 투명한 피부 톤을 연출한다. 또 피자를 조질하는 클로우 컨트롤 피우더를 함유해 피부를 한결 깨끗하고 균일하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 30ml 7만2천원.

촉촉하고 보습보습한 마무리감,
제너 하우스 메이크업 원장 오윤희가 추천하는 디올스킨 포에버 파운데이션
"디올의 베스트셀링 파운데이션이에요. 우수한 밸런스를 맞춰주어 지성 피부에 사용해도 좋은 제품이에요. 알게 발리는 것 같지만 투 보정력이나 카바팩이 우수해 메이크업 초보자도 쉽게 매끈하고 촉촉한 피부를 연출할 수 있어요. 퍼프를 사용해 톡톡 두들기듯 바르면 새틴 같이 부드럽고 보습보습하여 완벽한 피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후만 되면 메이크업이 쉽게 지워지는 지성 피부라면 포에버 파운데이션을 눈여겨볼 것.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어 메이크업이 하루 종일 지속된다. 촉촉하면서도 보습한 텍스처로, 피부에 닿으면 마치 부드러운 공기를 바른 듯 피부에 착 달라붙는다. 번들거림 없이 지속적인 카바팩을 유지하면서 피부 속은 촉촉하게 가꾸어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인 사람에게도 인성맞춤이다. 30ml 6만7천원.

자연스럽게 빛나는 피부 표현,
메이크업 아티스트 류현정이 추천하는 디올스킨 누드 파운데이션
"데이지가 있는 날이나, 피한 메이크업이 아닌 깨끗한 피부를 연출하고 싶을 때 디올스킨 누드 파운데이션을 추천합니다. 피부 본연의 광을 살리기 위해서는 파운데이션 브러시를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우선 라이트 카바리지 파운데이션 브러시로 속속 바른 뒤 카바팩을 높이고 싶은 부위에는 브러시를 세워서 바른 뒤 피부 본연의 광채를 살린 깨끗한 피부를 완성할 수 있어요."

티고난 피부가 좋은 듯 피부 본연의 광채를 살려주는 프레스 클로우 파운데이션. 자연스럽게 빛나는 피부를 표현하기 위해 독점적으로 개발한 천연 성분인 누드 클로우 피그먼트를 담아 하루 종일 자연스럽게 촉촉한 광채 피부를 연출할 수 있다. 마네퀴와이드와 함께 멜로, 지스텐, 허비스카스 등 세 가지 성분을 이상적으로 배합한 플로럴 워터를 함유해 보습, 탄력, 유연, 균일함에 광채까지 피부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또 자방산에서 유래한 천연 성

분인 비인딩 에이전트가 하루 종일 지속되는 촉촉함과 카바팩을 선사하고, 투광성 피그먼트가 빛이 피부 표면에서 널리 퍼지도록 해 어느 각도에서나 자연스럽게 빛나는 누드 광을 연출한다. 촉촉한 수분기가 감도는 텍스처는 얇고 가볍게 발라지던 밀착력이 뛰어난 메이크업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30ml 6만7천원.

부드럽고 매끈한 발림성과 빛나는 피부 표현,
김활란 유재니프 메이크업 원장 김활란이 추천하는 캠프 토탈 파운데이션
"결점 없이 완벽한 피부 메이크업을 연출하고자 한다면 캠프 토탈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보세요. 신부 메이크업을 할 때 제가 꼭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다른 어떤 파운데이션에서도 볼 수 없는 부드러운 텍스처가 특징이며 윤기 있는 피부 표현을 완성합니다. 즉각적으로 촉촉함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안티에이징 효과까지 있는 완벽한 파운데이션입니다."

윤기 있게 빛나는 피부를 표현하는 안티에이징 파운데이션으로, 새틴 텍스처가 피부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마치 새틴을 바른 듯 편안함을 선사한다. 주름 사이사이를 채워 비르는 즉시 피부 표면이 매끄러워지는 것이 장점. 디올의 독보적인 성분인 론고자-셀룰러 복합체™ 에센스가 안티에이징 효과를 발휘해 메이크업을 하는 동안에도 피부가 매끈해지는 스키퍼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컬러 코렉트™ 피그먼트가 피부 톤을 균일하게 해줄 뿐 아니라 보기 싫은 잡티를 완벽하게 카바한다. 더불어 피부 광채를 활성화하는 멀티 피그먼트를 함유해 생기 넘치는 피부 광채를 완성한다. 30ml 9만원. 문의 080-342-9500 에디터 권유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디올 캠프 토탈 트립플 코렉팅 새틴 파운데이션 SPF 25 30ml 9만원, 디올스노우 화이트 리필 프레스 트랜스퍼블리쉬 리퀴드 파운데이션 SPF 30 PA+++ 30ml 7만2천원, 디올스킨 누드 플루이드 파운데이션 30ml 6만7천원, 디올스킨 포에버 플루이드 파운데이션 30ml 6만7천원.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 고귀한 첫물 녹차 에너지

아모레퍼시픽을 대표하는 스테디셀링 아이템을 꼽자면 단연 최고급 안티에이징 라인인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크림이다. 이는 지난 2004년 출시된 이후,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 등 전 세계 여성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안티에이징 크림으로, 60여 년간 이어져온 아모레퍼시픽의 피부 과학을 집결한 제품이다. 녹차 하면 아모레퍼시픽이 떠오를 만큼 이젠 너무나도 잘 알려진 아모레퍼시픽만의 첫물 녹차와 아시안 보태니컬 성분을 함유해 피부 노화의 흔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녹차 추출물을 사용하는 다른 코즈메틱 브랜드와 아모레퍼시픽 제품의 차이점은 녹차의 퀄리티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그 비밀은 바로 첫물 녹차로, 1년에 단 한 번 청명과 곡우 사이 15일 동안만 채엽이 가능한 첫물 녹차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과 제주 한라산의 맑은 정기가 그대로 응축된 고귀한 성분이다. 대부분의 녹차 스키키퍼 컨셉트를 이용한 화장품이 품질 낮은 녹차 엽과 줄기를 사용한다면, 아모레퍼시픽은 가장 처음 수확한 녹차 생엽에서 얻을 수 있는 첫물 녹차를 사용해 품질과 효과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에 함유된 첫물 녹차에는 폴리페놀 성분인 EGCG가 함유되어 피부 세포가 더 많은 양의 수분을 머금도록 도와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더불어 아모레퍼시픽만의 독창적인 효능 물질 전달 기술인 피토 플루이딕스 기술을 적용한 '타임 코딩 시크릿' 안티에이징 노하우로 효능 물질을 피부 속 깊숙이 전달해 피부 탄력과 톤, 결을 모두 개선하는 토털 안티에이징을 실현한다.

수분감이 가득한 탄력 있는 안티에이징 젤 크림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크림이 10년간 꾸준히 사랑받아온 데는 누구나 만족할 만한 텍스처와 향도 큰 역할을 했다. 발림성과 질감에 까다롭고 민감한 한국 여성을 위해 수천 번의 테스트와 연구를 통해 텍스처 개발에도 남다른 노하우를 갖춘 아모레퍼시픽은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더운 여름 시즌을 겨냥해 수분감이 가득한 젤 타입의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크림을 제안한다. 기존의 타임 레스폰스 크림이 풍부한 보습력과 생크림같이 리치하고 부드러운 질감으로 건조한 가을과 겨울철에 사랑받아왔다면, 젤 크림은 젤리같이 탄력 있는 산뜻한 텍스처로 피부에 발랐을 때 수분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촉촉한 것이 특징. 끈적임 없이 가볍고 산뜻하게 흡수되기 때문에 건조한 부위에 여러 번 덧발라도 밀리거나 겹들지 않고 촉촉함이 배가된다. 시원하게 흡수되고 진정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피부가 자극 받았을 때 도톰하게 발라 수면 팩을 해주어도 좋다. 사용감은 가볍지만 안티에이징 효과와 보습력은 결코 가볍지 않은데, 피부에 보습막을 형성해 타임 레스폰스 크림과 동일한 효과를 구현한다. 세뼌 컨트를 기능이 과도한 피지를 조절해 시간이 지나도 매끈하고 보습보습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더불어 부담스럽지 않은 럭셔리하고 은은한 녹차 꽃 향은 지친 심신을 편안하게 달래주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울여름 가볍고 산뜻한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젤 크림과 함께 사계절 내내 녹차의 강력한 안티에이징 에너지를 느껴볼 것. 50ml 48만원, 문의 080-020-5757 에디터 권유진

Total anti-aging

안티에이징 제품은 모두 무겁고 리치하다는 편견은 버릴 것. 바르면 바를수록 촉촉함이 배가되는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젤 크림은 가볍고 산뜻하게 흡수되지만 효과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다.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발휘하는 그린티 성분과 대나무 수액을 풍부하게 함유해 여름철 탄력 잃은 피부에 생기를 더해주니 울여름 필수품이라는 사실은 더욱 분명하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top beauty Secret

드라마는 끝났지만 스타일은 남는다. 배우 김희애가 <밀회>에서 보여준 완벽한 옷차림과 피부 표현은 지금까지도 회자되니 말이다. 특히 반짝반짝 윤기가 도는 물광 피부는 여성들 사이에서 최고의 키워드로 등극하기도 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그녀만의 특급 피부 비결을 들어봤다.



1 SK-II의 로열 유저이자 광고 모델로 변함없는 아름다움을 보여준 김희애. 2 <밀회>에서는 맑고 투명한 피부 표현에 중점을 두고 레드 립 컬러로 포인트를 주었다. 3 고농축 피테라가 피부의 고급스러운 광을 실려주는 LXP 얼티미트 퍼펙팅 에센스. 극 중 김희애가 화장대 앞에서 여러 차례 사용했던 제품으로, 매장에서 문외가 채도하기도 했다. 4 화사하면서도 촉촉한 피부 표현을 위한 '워른 크림 파운데이션'.

터 차곡차곡 쌓은 빈틈없는 메이크업이 아니라 맨 얼굴처럼 보이는데, 촉촉하게 물기가 도는 고급스러운 느낌은 요즘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피부 표현이 아닌가. 선재(유아인 분)와의 첫 만남에서 혜원이 선택한 화이트 셔츠와 데님 팬츠, 단정한 올백 머리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평범한 스타일링인데, 이마와 양 볼, 콧등, 턱을 중심으로 매끈하게 도는 광채가 빛을 발한 것이다.

SK-II로 완성한 김희애의 뷰티 시크릿

<밀회>에서 김희애의 메이크업을 맡았던 디바이 수성의 정민 원장은 이번 드라마의 메이크업 포인트를 맑고 투명한 피부 표현에 중점을 두고 립 컬러로 변화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윤기 나는 피부를 뒷받침해주는 건 스킨케어. 메이크업 직전에는 항상 마스크를 사용해 피부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한 후 베이스 과정을 시작한다. 평소 팩 마니아로 알려진 김희애는 일상은 물론이고 촬영 강행군이 이어지는 날에는 아침저녁으로 목까지 SK-II 페이스 트리트먼트 마스크와 스킨 시그니처 3D 리디파이닝 마스크를 번갈아 사용한다고. 피부 속부터 광채가 나오도록 기초 제품으로 든든하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것이 촉촉하게 빛나는 피부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또 아침에는 물론만 세안해 피부에 유분을 적당히 남겨두고, 토너로 가볍게 닦아 피부를 정리한 다음 투명 수분 팩 SK-II 스킨 리부스터를 도톰하게 바르는 스킨케어 루틴을 거르지 않는다고 한다. 색조는 최대한 은은하게 유지하는데, 이것이 피부가 더 고급스럽게 돋보이는 비결이기도 하다. 눈에는 필이 없는 크리미한 베이지 컬러의 아이섀도를 바르고, 그 위에 브라운 톤의 아이섀도로 음영만 더한다. 아이라이너는 생략하는 대신 마스크라를 발라 눈매가 반짝반짝 빛나도록 만든다. 기획실장이라는 캐릭터를 보여주던 초반에는 민낯에 가까운 깨끗한 피부 표현과 버건디 컬러 립, 올백으로 정리한 포니테일로 절제 있는 스타일을 보여줬지만, 화를 거듭할수록 더 화사하고 여러 보이는 메이크업으로 조금씩 바뀌었다. 가끔 긴 생머리로 등장하기도 하고 핑크나 누드 톤의 립 컬러로 사랑스러운 느낌을 내기도 했다. 정민 원장은 "극이 전개될수록 좀 더 맑고 화사한 피부 표현에 중점을 뒀습니다. 평소에는 SK-II 워른 크림 파운데이션 420호로 피부 톤에 맞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했는데, 좀 더 생기 있는 표현을 위해 같은 제품 320호를 소량 사용해 하이라이트 느낌을 더했어요. 거기에 립 컬러로 변화를 주어 변함없이 세련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라고 전했다. 김희애 물광 피부의 비결은 오랜 시간 SK-II의 로열 유저로서 활약해온 그녀의 영보와 맞닿아 있기에 믿음을 더한다. 문의 080-023-3333 에디터 **이예민**

<밀회>의 스타일 아이콘, 김희애

드라마 <밀회>가 지난달 종영했다. 스무 살이 어린 남자와의 파격적인 사랑과 아름다운 영상, 음악계의 비리, 권력 등 다양한 소재를 완성도 있게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불륜을 미화했다는 목소리도 들려왔지만, 음악이라는 매개체로 이어진 두 사람의 관계와 가슴을 파고드는 대사, 이를 뒷받침하는 아름다운 선율은 많은 여성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스토리도 그렇지만 마지막 방송까지 많은 여성들을 화면 앞으로 불러 모은 데는 김희애의 패션과 피부도 한몫했다. '우아한 노비의 삶을 사는 오혜원은 역대 연봉의 예술 재단 기획실장이면서 재벌가의 3중 첩자 역할까지 담당하는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다소 절제된 디자인과 컬러, 고급스러운 소재를 통해 도회적인 느낌을 강조했다. 여성성을 표현하기 위해 은은하게 비치는 블라우스, 허리 라인을 강조한 플레어스커트처럼 페미닌한 디테일을 더한 아이템으로 포인트를 주는 식, 클래식함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화를 준 스타일은 완벽한 오피스 룩의 표본으로 등극했다. 스타일링만큼이나 포털사이트 핫토픽 키워드에서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단어는 '김희애 물광'. 검색창에 '김희애'를 입력하면 검색어 중 가장 상위에 올라 있을 만큼 화제를 몰고 왔다. 한 친구는 드라마보다 김희애 피부만 본다는 얘기를 했다. 불혹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빛이 나는 피부는 '도대체 뭘 발랐기에 저런 걸까'라는 궁금증을 일으킬 만했다. 베이스부



sensual Red

6월, 월드컵 개막과 동시에 붉은 악마의 함성 소리가 도시를 가득 메울 때, 가장 감각적인 레드 컬러 립을 연출하고 싶다면? 지금 가장 뜨거운 메이크업 아티스트 브랜드 나스(NARS)의 립 컬러 아이템은 당신에게 진정한 레드 컬러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아티팩터 시계 방향으로)
 나스 세린 립 펜슬 픽상부르 2.2g 3215천원,
 나스 레디언트 크리미 컨실러 6ml 42천원,
 나스 싱글 아이섀도우 페르시아 2.2g 3214천원,
 나스 블러쉬 액티브 에이 4.8g 3219천원,
 나스 립글로스 이터널 레드 6ml 3216천원,
 나스 립스틱 히트 웨이브 3.4g 3215천원,
 나스 레디언트 크림 컴팩트 파운데이션 12g 5215천원, 케이스 1215천원, 나스 팻렛 매트 립 펜슬 드래곤 걸 2.4g 3215천원, 나스 팻렛 매트 립 펜슬 레드 스케이퍼 2.4g 3215천원, 나스 네일 폴리쉬 도미바 15ml 2216천원.

웨이팅 리스트를 만든 나스의 레드 립 펜슬

요즘 뷰티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브랜드를 꼽으라면 바로 세계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프랑수아 나스의 메이크업 브랜드 나스(NARS)다. 압구정동에 위치한 갤러리아백화점 나스 매장을 찾으면 끝까지 사용한 립 펜슬을 들고, 같은 컬러를 다시 구매하려고 매장을 방문한 스타일리스트나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감각적이고 세련된 레드 립 펜슬의 경우 웨이팅 리스트가 있을 정도다. 뷰티 화보를 촬영하던 중년 여배우도 이 제품을 즐겨 사용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연령층과 관계없이 컬러 감각이 뛰어난 메이크업 아티스트부터 지금 전성기를 달리는 톱 여배우까지 선택하는 브랜드가 바로 나스인 것이다. 나스의 제품 중 가장 먼저 경험해야 하는 것은 품질에 품질을 거듭하고 있는 립 펜슬이다. 절묘한 크레용에 펜슬의 편리함과 립스틱의 기능을 더한 제품이다. 아주 빠르고 쉽게 레드 립을 완성할 수 있는 립 펜슬은 크림처럼 부드럽게 발리는 데 반해 지속력이 뛰어나다. 입술 안쪽부터 그라데이션해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데도 탁월하다. 나스는 뛰어난 컬러 감각으로도 유명한데, 다양한 계열의 립 펜슬 중 가장 먼저 추천하는 것은 팻렛 매트 립 펜슬 중 드래곤 걸 컬러. 선명한 레드 컬러로 산뜻한 느낌을 전해준다. 옐로우 계열의 레드 컬러를 원한다면 레드 스케이퍼 제품을 선택해도 좋다. 마무리감이 매트해 럭셔리하게 연출할 수 있다. 입술에 주름이 많고 더 촉촉한 느낌을 원한다면 세틴처럼 발리는 세틴 립 펜슬 픽상부르 컬러도 활용도가 높다. 허일루신과 클라젠을 함유해 부드럽게 발려, 립 펜슬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바를 수 있다. 고전적인 립스틱을 원한다면 히트 웨이브 컬러를 추천한다. 밝은 옐로우빛이 도는 레드 컬러로 화사하게 마무리된다. 올해 나스에서 새롭게 출시한 립글로스도 활용도가 높는데, 모든 레드 립 아이템을 사용한 후 살짝 덧바르면 윤기 있게 완성할 수 있고, 립글로스 이터널 레드도 경우 단독으로 사용해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나스의 레드 립스틱과 함께 사용해야 하는 아이템은 무엇일까? 바로 화사한 레드

립을 돋보이게 해줄 레디언트 크림 컴팩트 파운데이션과 레디언트 크리미 컨실러다. 잡티를 가리기 위해 피부 표현이 두꺼워지던 레드 립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에, 촉촉하고 피부를 그대로 살려주는 자연스러운 베이스 제품을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나스의 크림 컴팩트는 리퀴드 타입과 크림 타입의 장점을 모아 커버력이 뛰어난면서도 촉촉하다. 색상이 12가지로 출시되어 세심하게 선택할 수 있다. 리퀴드 타입의 크리미 컨실러 역시 어떤 제품과 섞어 사용해도 자연스럽게 블렌딩되어 활용도가 높고, 좁은 면적부터 넓은 면적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다섯 가지 컬러로 출시되었다. 문의 6905-3747 에디터 **배미진**

립 펜슬로 쉽게 깔끔한 레드 립을 연출하세요. "다양한 레드 립스틱 연출법 중, 날씨가 더워지면 원 포인트, 즉 입술만 강렬하게 표현하는 게 가장 세련된 방법이다. 매트하면서도 발색력이 뛰어난 나스의 팻렛 매트 립 펜슬 레드 스케이퍼 제품으로 깔끔하게 아이와 블러셔를 상투하는 것이 좋다. 리퀴드 파운데이션과 자외선 차단제는 1:1로 섞어서 발라 윤기 있는 피부를 연출하고, 레드 립으로 강렬한 느낌을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_by 메이크업 아티스트 손대식

월드컵 시즌에는 레드 립에 산뜻한 립글로스를 더하세요. "레드 립스틱을 연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립 발라 섞어 입술 가운데만 톱톡 찍어 발라,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하는 방법, 크레용 타입의 매트한 립 펜슬로 과감하게 바르는 것. 여기에 투명 글로스를 덧바르면 절리감이 탱탱한 립 메이크업이 완성된다. 그중 두 번째 방법은 월드컵 시즌에 주목받기 위한 메이크업으로 제격이다. 스모키 메이크업같이 과도한 아이 메이크업보다는 깔끔한 아이리노와 마스크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_by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지현

선명하고 시크한 컬러의 레드 립을 원한다면 컨실러로 입술 톤을 정리한 후 립스틱을 바르세요. "레드 립은 예전처럼 정형화된 라인에 따라 그리기보다 입술 안쪽부터 손으로 톱톡 두르려 퍼트린 물든 것처럼 자연스러운 입술을 완성할 수 있다. 레드 립을 바르기 전 립스틱 본연의 색감을 살리기 위해 립 전용 토너 제품, 혹은 컨실러로 기본 입술 톤을 한 단계 낮춘 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스의 히트 웨이브 컬러 립스틱은 레드 립에 처음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이다. _by 이희혜 & 메이크업 이미지링 김장

editor's Pick

황금연휴와 브라질 월드컵이 기다리는 뜨거운 6월. <스타일 조선일보> 기자들의 화장대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지금부터 필요한 슬리밍 앰플과 보디 오일, 데오도란트를 비롯해 상큼한 플로럴 향수 등으로 집약된 이달의 코즈메틱.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바비 브라운 엑스트라 모이스처라이징 밤** 출할 때도 빼놓지 않고 꼭 가지고 다니는 제품. 계절에 관계없이 언제나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준다. 리퀴드 피운데이션이나 비버크림과 섞어서 바르면 자연스러운 윤광을 연출할 수 있다. 50ml 15만원. 문의 02-3440-2781 *_by 에디터 배미진*

슈에무라 클로우 은 M225 바디이 드라닝 때까지 다 쓴 블러셔는 이 걸라가 처음이다. 피플, 라벤더 절라는 노란 피부 톤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효과가 있으니 노랑과 칙칙한 피부가 고민이라면 보랏빛 블러셔를 꼭 한번 사용해볼 것. 4g 9만3천원. 문의 080-022-3332 *_by 에디터 권유진*

반클리프 아펠 스프링 블러범 아름다운 패키지만으로도 소장할 가치가 충분한 주얼리 브랜드의 향수. 시적인 주얼리를 선보이기로 유명한 반클리프 아펠의 향수는 보석 모양의 보틀에 오장이 심포시 남아 있는 듯 우아하게 완성했다. 달콤한 과일 향기와 매그놀리아, 피오니, 마스크의 향이 어우러진 사랑스러운 향기를 담았다. 50ml 9만5천원. 문의 080-800-8809 *_by 에디터 배미진*

SK-II LXP 알티미트 파커링 크림 영미는 물론 이모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크림. 광안광안 써도 얼굴에 윤기가 흐르는 것이 과연 SK-II의 프리미엄 라인답다. 코를 양순으로 감싸고 숨을 들이쉬면 요즘 말로 '고급진' 장미 향이 퍼져 특별한 만족감을 준다. 50g 39만원. 문의 080-023-3333 *_by 에디터 이예진*

VB 슬리머 DX 하루에 1개,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한 아침에 마시면 체지방 분해에 도움을 주는 앰플. 가장 좋았던 점은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었다는 것. 그래서 행복한 복부가 어느 정도 편안해졌다. 25mlX30개, 9만원. 문의 080-023-5454 *_by 에디터 이예진*

설화수 윤즈에센스 아메니들에게 선물하면 가장 좋아하시는 제품. 브랜드를 대표하는 제품인 만큼 발림성과 텍스처, 효과 모두 뛰어나다. 푸석한 피부에 영양제처럼 꾸준히 사용하면 효과적인데, 인피에이징부터 수분 공급까지 모든 면에서 탁월하다. 60ml 8만5천원. 문의 080-023-5454 *_by 에디터 배미진*

안셀로랑 베이비틀 키스 & 블러시 첫째, 대접하고 싶었던 걸라에 반했다. 둘째, 캐시미어처럼 부드럽고 가벼운 텍스처, 그리고 벨과 인출에 모두 쓸 수 있다는 점에 구매를 결정했다. 자연스러운 발색으로 두 가지 컬러를 섞어 발라도 예뻐, 특히 볼에 연출할 땐 풍채지 않고 실키가게 마무리되어 메이크업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10ml 5만5천원. 문의 080-347-0089 *_by 에디터 권유진*

록시팜 이로우 리페어 샴푸 후한면 되면 들뜨는 머리가 처분하게 느끼면 뭘 이 샴푸를 쓴 날이다. 텍스처는 다른 샴푸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50% 이상 머리를 말리다 보면 부드러운 촉감이 느껴지는 게 낫다. 300ml 3만원. 문의 02-3014-2965 *_by 에디터 이예진*

겐조 플라워 바이 겐조 퍼플즈 플 온 데오도란트 저렴한 데오도란트의 흔하고 역한 냄새에 실망한 적이 있던 만큼 진정할 만한 제품. 심플한 플로럴 향기가 매일 사용해도 질리지 않는 만족감을 준다. 매트하고 깔끔한 마무리가 때문에 여름마다 선택하는 제품이다. 45ml 3만5천원. 문의 080-344-9500 *_by 에디터 배미진*

플라워 유니아 인디앗 가넷 어둠이 출찍 때이고 싶을 때, 인도의 이국적이고 강렬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이 향수를 뿌려보자. 인도에서 온 매혹적이고 신성한 오렌지 컬러의 보석인 인디안 가넷과 관능이 넘치는 인도인 튜베로즈가 어우러진 감각적인 향이 활기치고 즐거운 에너지가 넘치는 마법의 세계로 당신을 안내할 테니. 40ml 9만5천원. 문의 080-990-8989 *_by 에디터 권유진*

젤랑 수퍼 아이유 세럼 피지 산유국이라 불릴 만큼 어뵤찰만 되면 과도한 피지로 끈적하고 번들거리는 피부엔 신뜻한 수분 세럼이 절실하다. 수분 케어 분야에서 최고의 인지를 가지고 있는 젤랑의 수퍼 아이유 세럼은 뛰어난 2중 보호막으로 피부를 보호하면서 강력한 수분 공급 효과로 다른 날씨에도 촉촉하고 보습보습한 피부를 연출한다. 30ml 19만6천원. 문의 02-3438-9627 *_by 에디터 권유진*

달랑 이로우릭 류리워링 밤 이 제품이 다 떨어지면 보완할 정도로 트러블에 특효인 진정 이로우 밤. 해바라기와 살구 오일, 라벤더, 타인, 제라늄, 캐마미일 등 향균 작용이 탁월한 이로우 성분은 배합해 피부 트러블을 빠르게 잠재준다. 15ml 10만원. 문의 02-3440-2906 *_by 에디터 권유진*

오을 인퍼트 오일 1년 넘도록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보디 오일. 100% 유가농 인종을 받은 원료로 만들기 때문에 향기와 텍스처, 흡수성 모두 만족을 주고 싶다. 특히 림프순을 자극하는 효과가 뛰어나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되었다. 200ml 11만9천원. 문의 02-517-5515 *_by 에디터 배미진*

다을 에디트 오드 두왈렛 에디트 림글로스 패키지의 대형 사이즈 버전이 향수로 태어났다. 정교한 건축물을 연상시키는 모던한 패키지가 매력적이다. 무감지 않게 완성된 플로럴 우디 향이 고급스러운 진함과 함께 상쾌함까지 선사한다. 50ml 11만6천원. 문의 02-3438-9631 *_by 에디터 이예진*



Up in the air

붉은 드레스, 멀리 에펠탑이 보이는 파리 하늘을 가득 메운 붉은 포피의 가벼운 흩날림에 담긴 몽상. 가장 행복한 이야기만 담은 아름다운 꿈을 연상케 하는 겐조 퍼플의 새로운 향수, '플라워 인 디 에어 오드 두왈렛'.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가벼워지만 강인한 포피의 힘

우리는 왜 향수를 사랑할까. 향기 자체와 향수에 담긴 스토리는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도록 오감을 자극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그 때문에 고요하지만 감정을 극대화하는 순간을 위해 나에게 딱 맞는 향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향수를 선택하게 되는 것. 단순히 향기를 전하는 것을 넘어 특별한 스토리를 원하는 여성에게 딱 맞는 향수 브랜드가 있다. 바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럭셔리 기업인 LVMH 그룹에서 향기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담아 선보이는 겐조 퍼플이다. 생애 첫 번째 향수, 선물하고 싶은 향수 리스트 중 상위에 자리하는 겐조 퍼플은 향기에 대한 프랑스 브랜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향수를 선보인 바 있다. 겐조 퍼플의 아이템 중에서도 향수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깊이 각인된 것은 여러디어린 빨간 포피(양귀비꽃)의 영혼을 담은 플라워 바이 겐조다. 동양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지닌 홍콩의 여배우 서기가 빨간 드레스를 입고, 속삭이듯 포피의 매력 전하는 플라워 바이 겐조의 광고 이미지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뷰티 업계에 회자될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스토리 역시 독특한데, 이 향수의 메인 테마인 포피는 단순한 양귀비꽃이 아니라, 도심에서 피어난 강렬한 자연의 생명력을 담은 단 한 송이의 꽃을 상징한다. 현대적인 여성의 아름다움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겐조 퍼플은 올해 이 세계적인 메가 히트 향수를 재해석한 향수를 선보이는데, 바로 플라워 인 디 에어 오드 두왈렛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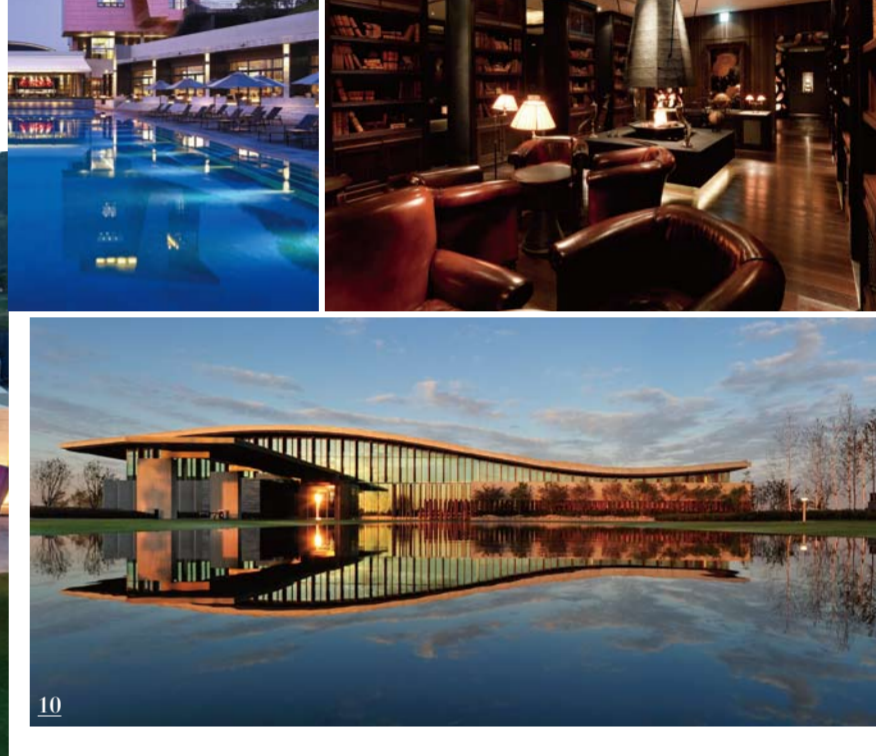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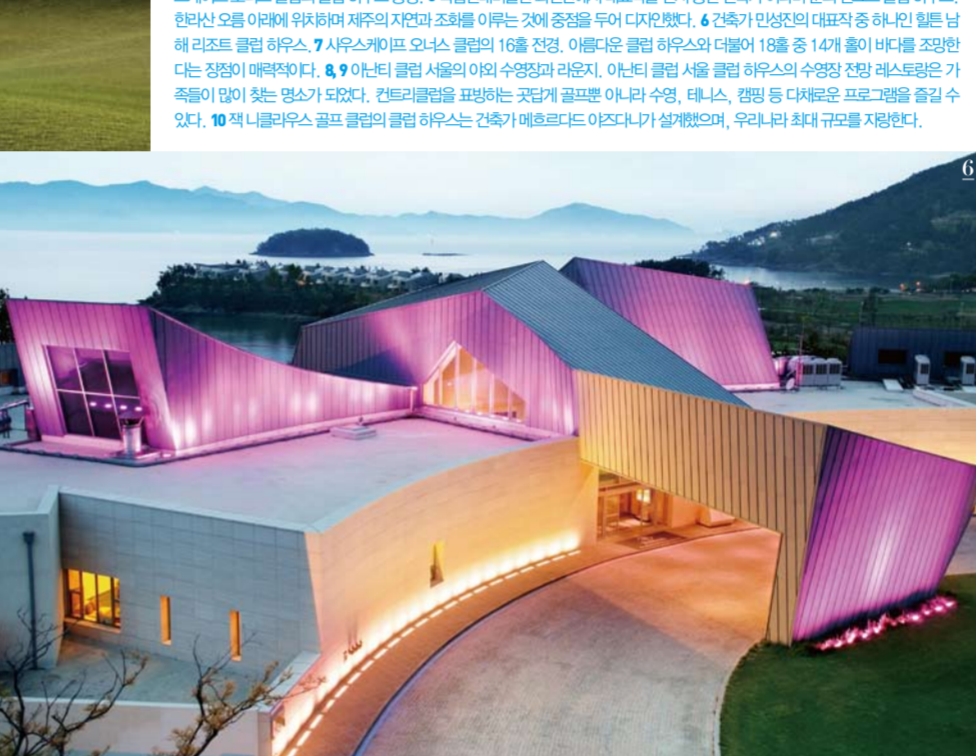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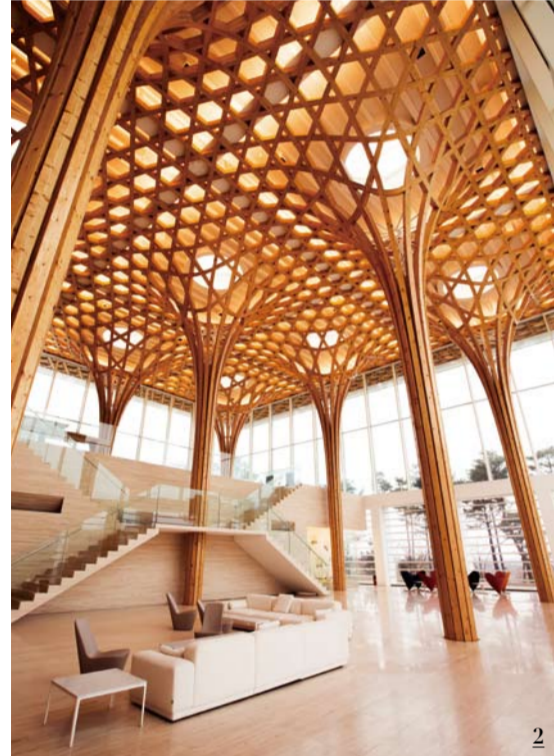
겐조의 새로운 꿈, 플라워 인 디 에어 오드 두왈렛

이전의 플라워 바이 겐조가 도심에서 피어난 붉은 포피 한 송이를 테마로 했다면, 새롭게 선보이는 플라워 인 디 에어는 도심에서 피어난 포피가 하늘로 올라가 새로운 향기로 피어난다는 공감각적인 상상을 자극하는 향수다. 수석 조향사인 알베르트 모랄라스는 이 향수를 탄생시키기 위해 특별한 순간을 상상했다. 포피를 주제로 한 플라워 바이 겐조라는 향수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이지만, 이 포피의 향기가 하늘로 날아갈 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장미 향이 완성될 것이라는 대담한 상상을 표현한 것이다. 대즐링 로즈라는 네 가지 장미 에센스를 추출해 탄생시킨 장미 향은 오직 겐조만을 위한 세계적인 조향사의 선물이다. 문화와 나이, 성격이 모두 다른 여성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이슬을 머금은 청순한 장미 향이 특징이다. 하늘에 떠 있는 포피의 새로운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눈부신 플로럴 향이 바로 플라워 인 디 에어의 진짜 얼굴이다. 핑크 자몽, 과즙이 풍부한 배, 만다린으로 구성되어 신선하면서도 자극적인 노트가 선사하는 신뜻함을 지니고 있다. 또 섬세하게 어우러진 매혹적인 장미, 프리지아, 재스민 향을 여성스러운 베이스 노트인 화이트 마스크에 덧입혀 신선하지만 강렬하고, 단순하지만 화사한 향기를 만들어낸다. 오직 나만을 위한 향수인 듯, 붉은 포피가 그려진 패키지가 아름다운 플라워 인 디 에어 오드 두왈렛은 파리의 하늘을 자유롭게 누리는 포피가 되어 온 세상을, 그리고 이 향수를 뿌리는 순간을 황홀하게 만든다. 50ml 9만6천원. 문의 080-344-9500 *에디터 배미진*

클럽 하우스가 아름다운 골프장

Suite Clubs

골프장에 골프만 치러 간다? 유명 건축가들이 설계한 아름다운 클럽 하우스는 휴식뿐 아니라 예상치 않았던 예술 감상의 즐거움까지 선사한다. 건축가 조민석의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클럽 클럽 하우스, 건축가 메흐르다드 아즈다나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 클럽 코리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이타미 준의 핀크스 등 아름다운 클럽 하우스를 중심으로 라운딩을 위한 골프 클럽을 선정해보는 것은 어떨까?



퍼블릭 코스외의 명품 클럽 하우스,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클럽

퍼블릭 코스외의 클럽 하우스가 몇몇 리 없다? 지난해 개장한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클럽은 명품 퍼블릭 코스로 주목받고 있다. 2014 베네치아 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 커미셔너로 선정된 건축가 조민석이 설계한 클럽 하우스가 그 증거다. 조민석은 헤이리의 딸기가 좋아, 강남 오피스텔 부티크 모나코 등을 만든 젊은 건축가로,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클럽의 클럽 하우스에서는 바다 조망이라는 부지의 장점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 클럽 하우스는 리조트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남쪽으로 바다가 펼쳐진다. 위에서 보면 X자 모양인 클럽 하우스는 2개로 나뉘어 있는데, 그 사이가 중정으로 연결된다. 남해의 온화한 날씨와 환상적인 풍광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정에 크게 구멍을 뚫어 하늘을 볼 수 있게 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시원한 남해 바다는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클럽만의 특별한 선물이다. 클럽 하우스에는 레스토랑, 라커 룸, 리셉션, 뮤직 라이브러리, 스파 등이 자리하고 있다. 레스토랑, 리셉션, 라커 룸에는 천장이 있어 하늘을 볼 수 있고, 노천탕과 수영장에서 바닷바람을 만끽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골프장 중에서 유일하게 뮤직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첨단 디자인의 건축물에 설치된 아날로그 음악 감상실이 흥미롭다. 운영하는 물고기를 연상시키는 유선형의 야외 수영장은 핀란드식 히노키탕으로 직접 연결된다. 차병원에서 운영하는 차움의 테라스파는 미술가 홍동희가 내부 벽체를 작품처럼 완성해 미술관에 온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이곳은 아름다운 클럽 하우스를 갖추었다는 장점 이외에 18홀 중 14개 홀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시 사이드 코스라는 것도 대단히 매력적이다. 기존의 퍼블릭 가격을 능가하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단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팀당 최고 1백48만원의 그린피를 내고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코스라고 생각할 골퍼들이 대부분일 것이며, 여기에는 클럽 하우스의 풍광도 한몫을 담당한다. 미국의 인기 퍼블릭 코스인 페블 비치 골프장을 연상시키는 멋진 골프장이다.

골프 클럽 문화의 진수, 해슬리 나인 브릿지 클럽 하우스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클럽이 퍼블릭 코스외의 명품이라면, 해슬리 나인 브릿지는 골퍼 클럽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곳이다. 비회원은 절대 받지 않는 클럽 문화를 적용하기에 골퍼들의 중심이 되는 클럽 하우스의 역할은 더욱 상징적일 수밖에 없다. 클럽 회원만의 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엄격한 회원 선정과 다양한 커뮤니티 활성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운영위원회의 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클럽 하우스이기 때문이다. 건축계의 노벨상

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일본의 건축가 시게루 반이 설계한 해슬리 나인 브릿지의 클럽 하우스는 친환경적인 건축 설계에 중점을 둔 예술 작품이다. 종이판, 목섬유 등의 친환경적인 소재를 이용하는 건축가로 잘 알려진 시게루 반을 섭외한 것은 해슬리의 자연 친화적인 콘셉트에서 비롯된 것이다. 거대한 나무 기둥인 팀버 스트러처(Timber Structure)는 우리나라 전통 소품인 죽부인과 골프 티(tee)를 형상화한 것이다. 나무 구조물은 유리벽 안에 설치되어 있어 자연 채광과 통풍이 가능하며, 날씨에 따라 개방할 수 있다. 기하학적인 나무 기둥들이 이어진 내부에 들어서면 마치 숲 속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든다. 클럽 하우스 1층은 스타트 하우스, 2층은 스파, 3층은 야외 레스토랑이다. 해슬리 클럽 하우스는 오프하자마자 6th World Architecture Award in USA Winner 등 세계 3대 건축상을 휩쓸었다. 또 2014년 <골프 다이제스트>가 선정한 'World's 100 Greatest Golf Courses', 2012 아시안 투어 플레이어가 선정한 '최고의 개최지', 뉴욕 타임스가 선정한 '2012 올해 꼭 가봐야 할 세계적 명소' 중 한 곳으로 선정된 데에도 클럽 하우스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 골프 코스 또한 친환경 비료를 사용하고 토양과 하천 오염 방지 시스템을 설계해 친환경 골프장 GEO 인증을 받았다. 코스 주변에는 고라니와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가 살고 있다.

제주도의 힘, 세인트 포와 핀크스

"사람의 생명, 강인한 기원을 투영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는 건축물은 태어날 수 없다. 사람의 온기, 생명을 작품 말바탕에 두는 일. 그 지역의 전통과 문맥, 에센스를 어떻게 감지하고 앞으로 만들어질 건축물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땅의 지형과 바람의 노래가 들려주는 언어를 듣는 일이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전시 중인 재일 교포 건축가 이타미 준(1937~2011년)의 핀크스 클럽 하우스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명작이다. <이타미 준: 바람의 조형> 전시를 통해 이타미 준은 원래 무겁고 원시적인 건축을 추구했지만, 말년의 제주도 건축물 작업에 이르러서는 평온하고 차분한 작품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시즈오카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작가의 제2의 고향이었던 제주도는,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상징적인 곳이었으리라. 핀크스 클럽 하우스는 자연과 대립하면서도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작가의 철학을 투영한 대표작 작품으로 남았다. 클럽 하우스는 한라산의 오름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밑으로 코스가 그림처럼 펼쳐진다. 레스토랑과 연회장, 스파, 라커 룸 등이 있는데, 레스토랑에서는 날씨 좋은 날이면 멀리 산방산



1 레인보우 힐스 골프 클럽 하우스는 100%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VIP존이 매력적이다. 2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일본의 건축가 시게루 반이 디자인한 해슬리 나인 브릿지 클럽 하우스. 웅장한 나무 기둥은 우리-과 전통 소품인 죽부인과 골프 티에서 영감을 얻어 설계했다. 3 제주도 상지코에 위치한 세인트 포 골프 클럽의 클럽 하우스 레스토랑. 건축가 이길재는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클럽 하우스를 만들었다. 4 2014 베네치아 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 커미셔너로 선정된 건축가 조민석이 설계한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클럽의 클럽 하우스 중정. 5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전시 중인 건축가 이타미 준의 핀크스 클럽 하우스. 한라산 오름 아래에 위치하며 제주도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에 중점을 두어 디자인했다. 6 건축가 민성진외의 대표작 중 하나인 힐튼 남해 리조트 클럽 하우스. 7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클럽의 16홀 전경. 아름다운 클럽 하우스와 더불어 18홀 중 14개 홀이 바다를 조망하는 장점이 매력적이다. 8, 9 아나티 클럽 서울의 야외 수영장과 라운지. 아나티 클럽 서울을 클럽 하우스의 수영장 전황 레스토랑은 가족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컨트리클럽을 표방하는 곳답게 골프뿐 아니라 수영, 테니스, 캠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10 잭 니클라우스 골프 클럽의 클럽 하우스는 건축가 메흐르다드 아즈다나가 설계했으며, 우리나라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과 미라도가 보일 정도로 탁 트인 전망을 과시한다. 이타미 준은 핀크스가 제주도의 지형과 바람이 어울릴 수 있도록 클럽 하우스를 화룡점정(畫龍點睛)으로 삼았다. 핀크스(Pink)의 어원은 라틴어로 'pink.it'의 줄임말로 그림을 그렸다는 의미로 그림의 서명에 사용되는 말이다. 핀크스가 위치한 미토토파아 안에 함께 만든 포도 호텔, 수·풍·석 미술관, 방주교회 등도 제주에서 받은 영감으로 탄생시킨, 소박하면서도 예술적인 그의 대표작이다. 제주도의 축복받은 자연은 건축가에게 영감을 준다. 건축가 이길재가 설계를 맡은 세인트포 골프 클럽 클럽 하우스는 섬지코지에 위치한다. 묘산봉과 감평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며, 루이 비통 파리 본사 건물로 유명한 프랑스의 건축가 장 지크 오리가 설계 자문을 맡아 화제가 되었다. 클럽 하우스는 레스토랑과 사우나, 골프장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VIP룸과 전망대로 이루어져 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양으로, 상록수림 지대이니만큼 한겨울에도 푸른색을 유지하는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높아지는 구조를 띠며 새의 머리 부분이 멀리 바다를 향해 내부 제일 안쪽에서는 한눈에 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독수리의 일이라고도 불리는 화장실은 내부 테두리를 둘러싼 원형 바다의 조명과 동굴 같은 천장 구조, 메탈 느낌의 타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민성진 건축가의 아나티 클럽 서울, 힐튼 남해 리조트

주목할 만한 클럽 하우스들을 살펴보다 보니 우리나라 건축가의 활약이 눈에 띈다. 특히 민성진 대표는 클럽 하우스의 고수라 할 수 있는데, 특색 있는 클럽 하우스로 손꼽히는 아나티 클럽 서울, 힐튼 남해 리조트, 금강산 아나티 골프 & 온천 리조트,레이크힐스 순천, 아름다운 CC 등을 설계했다. 아나티 클럽 서울 클럽 하우스는 유명인의 우거진 수림을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지상에서 6m 아래 땅속으로 내려가 건축물을 만들었다. 입구에서 보면 숲이지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전혀 의외의 공간이 펼쳐지는 콘셉트다. 클럽 하우스의 이름은 'A하우스로 아나티 클럽 서울의 모든 액티비티는 이곳에서 시작되고 끝을 맺는다. 우리나라 유일의 컨트리클럽을 표방하는 곳답게, 골프뿐 아니라 수영, 테니스, 캠핑,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마련되어 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많으니 이곳에서라면 매주 골퍼를 치러 가도 가족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야외 수영장 전방의 레스토랑은 클럽 하우스의 하이라이트다. 민성진 건축가의 또 다른 작품, 힐튼 남해 리조트 클럽 하우스는 스페인 구겐하임 미술관을 닮은 외관으로 유명하다. 작문인리스틸 자방, 자연석과 콘크리트가 어우러진 외관은 차가우면서도 아늑하고,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러운

럽다는 호평을 받는다. 클럽 하우스는 커뮤니티 하우스, 스파를 포함하고 있는데, 힐튼 남해 리조트가 개장 10년을 앞두고 여전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은 클럽 하우스 디자인의 인기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힐튼 남해 리조트는 우리나라 최초의 애완동물 숙박 가능 리조트이기 휴가 시즌이면 더욱 높은 인기를 누린다.

잭 니클라우스 골프 클럽과 레인보우 힐스

송도국제업무단지에 위치한 잭 니클라우스 골프 클럽은 국제 규모의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전설의 골퍼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한 골프 클럽답게 주차장, 갤러리 동선, 중계탑을 위한 공간, 연습장 시설을 갖췄다. 2015년 이곳에서 열린 프레지던트스컵이 기대되는 이유다. 그러기에 건축가 메흐르다드 아즈다나가 만든 클럽 하우스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이며, 골프 클럽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코스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레스토랑과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스파 등이 위치해 회원들의 원활한 네트워킹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클럽 하우스 건물은 멀리서 보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우아한 유람선 같다. 이는 잭 니클라우스 골프 클럽이 한 면은 바다, 한 면은 송도국제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한다는 태생적 독창성에서 비롯된 장점이다. 레인보우 힐스 골프 클럽은 동부그룹의 김준기 회장이 직접 섭외한 거장들이 코스와 클럽 하우스 설계를 맡은 곳이다. 이미 은퇴한 세계적 코스 디자이너인 로버트 트렌트 존스(RTJ)를 설득해서 설계를 맡겼고,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MAI 디자인(MAI Design) 그룹이 자국을 벗어나 최초로 디자인을 맡은 건축물이다. 이 클럽 하우스의 최대 장점은 100%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VIP존이다. VIP 스위트, 프라이빗 스파, 수영장실 등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 국내외 명사들이 선호할 것으로 짐작된다. 이외에 흥천 휘슬링 락, 아름다운 골프 & 온천 리조트 등도 골프 애호가들에게 손꼽히는 클럽 하우스를 갖추고 있다. 때로는 스타 건축가들의 활약으로 탄생한 클럽 하우스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골퍼를 간접한 스포츠가 아니라 고급 레저 활동으로만 인식될 수 있고, 회원권 가격을 높이기 위해 호사스럽게 꾸민 곳들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름다운 건축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데 의미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클럽 하우스와 코스 디자인의 독창성은 비례한다는 것도 매력적인 요소다. 이번 주말에는 골프도 치고 멋진 클럽 하우스를 감상하며 모처럼 느긋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KS** 글 이소영(사진 미술에 중독되다), 서울, 그베(올라) 저자

SHOWROOM



루이비통 2014 카푸친 백 루이비통에서 이번 시즌 새로운 컬러의 카푸친(Capucines) 백을 출시했다. 아이에르 루이비통 공방에서 1892년부터 시작된 가죽 제품 제작의 노하우를 담은 카푸친은 가죽의 질감을 살린 단단한 형태에 파인 주얼리 장식을 더해 루이비통과 매혹이 추구하는 가치를 상징한다. 2백50회가 넘는 제작 단계를 거쳤을 만큼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세련미와 품위를 느낄 수 있다. 문의 02-3441-6477

프라이드 아이웨어 PR 07QS 이번 시즌 프라이드 아이웨어는 여성스러운 로망티시즘을 절제한 스타일로 대체롭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대담한 패턴과 캐주얼 아이 형태의 프레임이 돋보이는 'PR 07QS'는 블랙, 브라운 컬러를 비롯해 블루와 터키, 레드와 오렌지 조합으로도 선보인다. 문의 02-501-4436

루이까뜨즈 루이스 클럽 루이까뜨즈가 6월 12일, 신사동 가로수길에 남성 라이프스타일 편집매장 루이스 클럽(Louis Club)을 오픈한다. 지하 1층에 서는 루이스 클럽 라인으로 새롭게 디자인한 가방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수입한 디자이너 브랜드 의류와 잡화를 판매할 예정이며, 2층에서는 남성 그루밍과 스킨케어 제품, 액세서리를 만날 수 있다. 특히 1층은 남성의 로망이 담긴 다양한 브랜드와의 컬라베이션을 통해 감각과 자성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연출할 계획이다. 문의 02-2250-9535

골드문트 프로로그스 와이어리스 시스템 골드문트의 2014년 신작인 '프로로그스 와이어리스 시스템(ProLogos Wireless System)'은 브랜드의 최고급 모델인 아폴로그(Apologue)의 기술을 그대로 담은 폭발적인 사운드로 현장감을 높였다. 미니멀한 디자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오브제로도 훌륭하며,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와이어리스 시스템으로 집안 어디에서든 작은 동글(dongle)을 컴퓨터에 연결해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2-516-9081

타이틀리스트 2014 서머 시즌 어패럴 타이틀리스트 어패럴이 본격적인 골프 시즌을 맞아 '2014 서머 컬렉션'을 선보인다. 통일감 있는 스타일링이 가능한 '컬러 크로스' 코디가 특징으로, 어패럴과 동일한 컬러 구성으로 선보이는 벨트와 골프백, 액세서리 등과 매치해 완벽한 룩을 제공한다. 화이트, 코발트, 리민, 퍼플, 인크 등 눈에 띄는 선명한 컬러를 채택했으며, 감각적인 패턴과 기능성 소재를 결합했다. 전국 45개 타이틀리스트 브랜드 스토어에서는 이번 시즌 어패럴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3가지 컬러로 구성된 타이틀리스트 볼 마커를 제공한다. 문의 02-3014-3800

클림메드 발리 리조트 젠 풀 오픈 클림메드 발리 리조트에서 여름을 위한 공간인 '젠 풀(Zen Pool)'을 새롭게 오픈했다. 웅장한 계단식 입구에 들어서면 눈



클림메드 오라엔트 골프



프라다의 특별한 프로젝트, <프라다스피어>
 지난 5월, 프라다가 영국 해러즈 백화점과 손잡고 <프라다스피어(PradaSphere)> 전시를 진행했다. 40개의 원도 디스플레이와 팝업 스토어, 여러 개의 스크린 디스플레이, 우아한 마르케시 카페, 패션과 액세서리에서부터 예술, 건축, 영화, 스포츠와 그 이상의 범주까지 프라다의 취향을 다각적으로 엿볼 수 있는 전시장으로 꾸며졌다. 감각적인 원도 디스플레이로 잘 알려진 해러즈인 만큼 전시장 분위기가 역시 예사롭지 않았다. 해러즈 백화점을 위해 제작한 레드투웨어 컬렉션과 백, 슈즈, 액세서리 라인을 포함한 캡슐 컬렉션을 전시했는데, 대리석 바닥에서 녹색 스펀지 벽면이 이르기까지 구름 위를 떠다니는 다바트를 유영하기도 하는 대체로운 디스플레이는 프라다의 다재다능한 아티스티컬 대변한다. 백화점 입구에 들어서면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블랙과 화이트 체크무늬 대리석 바닥이 공간을 압도하는 팝업 스토어를 만날 수 있다. 광택이 도는 칠재와 크리스탈 산란에는 여성용 가죽 제품과 액세서리, 보석, 아이웨어 컬렉션을 진열했다. 5층에는 프라다의 자나온 시간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아카이브 컬렉션이 진열되었고, 전시장 중앙에는 프라다의 작품임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67지 콘센트의 스케이스가 자리했다. 지난 컬렉션의 슈즈와 백, 정교한 직물과 소재, 디자인 컬렉션과 폰다지오네 프라다(Fondazione Prada)에 이르기까지 프라다의 풍부한 헤리티지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전시장을 따라가면 또 하나의 공간, 마르케시 카페가 나타난다. 1824년에 밀라노에서 탄생한 마르케시는 초콜릿, 베이커리, 케이크 등으로 잘 알려진, 전설과도 같은 존재. 정교한 실내 벽 장식과 신비로운 조명으로 꾸민 발코니 공간이라는 본래 건축 기법이 이곳 임시 카페에서도 재현되었다. 대중문화, 건축, 영화, 예술 등을 넘나들며 미학자인 이올라움 드라넬 <프라다스피어>는 프라다가 패션 하우스 이상의 브랜드라는 점을 보여준 특별한 프로젝트로 기억될 것이다. 문의 02-3218-5330



골드문트



타이틀리스트



브레게

스와치

티쏘

오메가

스와치 아일랜트 컬러 컬렉션 스위스에서 '아일랜트' 컬러 컬렉션을 출시한다. 시계 부품이 보이는 투명한 다이얼 위치를 뜻하는 레커드를 응용한 하프 레커드를 적용해 마치 바닷속에 잠겨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화이트 컬러인 언더 워터와 같은 네이비와 블루 컬러의 크라이오닉이 돋보이는 '블루 펄스'를 중심으로 197가지 다양한 컬러선으로 구성했다. 문의 02-3446-9401

티쏘 퀵스터 풋볼 수많은 스포츠 경기에서 타임키퍼의 역할을 수행해 티쏘가 축구에 특화된 '퀵스터 풋볼'을 선보인다. 축구 유니폼에서 영감을 얻은 컬러와 백 케이스, 하프 타임과 오버 타임이 있는 축구 경기의 시간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한 무브먼트가 특징이다. 4시 방향에는 날짜 창이 자리하며, 시퍼라이어 크리스탈로 스크래치를 방지한다. 가죽 실리콘 스트랩은 퀵스터 워치의 스포티한 매력을 드러낸다. 문의 02-543-7685



티파니

JEWEL

오메가 드빌 프레스티지 버터플라이 오메가가 여성 워치 '드빌 프레스티지 버터플라이'를 새롭게 선보인다. 브랜드의 정교한 세공 기술을 엿볼 수 있는 드빌 프레스티지 버터플라이는 사랑과 영원을 상징하는 나비에서 영감을 받았다. 화이트 메타오브얼 다이얼의 인텍스에는 18K 화이트 골드 홀더로 고정된 9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브레이슬릿 버전과 새틴 스트랩 버전으로 선보인다. 문의 02-511-5797

티파니 2014 블루북 컬렉션 뉴욕의 구겐하임 박물관에서 티파니 '2014 블루북 컬렉션'을 공개했다. 1845년부터 매 시즌 선보인 블루북 컬렉션은 전 세계 VIP 고객에게 희소성이 있는 하이 주얼리를 선보이는 것으로 명성이 높다. 올해는 티파니의 전설적 다이아몬드에서 영감을 얻은 화려한 컬러 펠스토프와 아카이브에서 영감을 얻은 골드 소재의 주얼리로 완성했다. 문의 02-547-9988

브레게 아트 오브 워치메이킹 전시 브레게가 지난 5월부터 <브레게, 아트 오브 워치메이킹> 전시를 통해 최신 타임피스와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를 국내 처음 선보였다. 이번 전시를 위해 4개의 2014 바젤월드 최신 모델을 비롯해 국내에 미공개된 2013년 바젤월드에서 선보인 4개의 워치, 그리고 마티리피티, 트윈 투르비용 등 5개의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를 스위스에서 특별히 공수했다. 현대백화점 본점에서는 6월 12일까지, 갤러리백화점에서는 6월 29일까지 진행한다. 문의 02-2118-6480

해밀턴 팝업 스토어 오픈
 해밀턴이 국내 문정 5주년을 맞아 팝업 스토어 오픈 행사를 열었다. 지난 4월 제임스마스터를 시작으로 웨이퍼드, 필드, 에베이션, 네이비 등 5개의 메인 컬렉션을 테마로 매달 공간이 색다르게 꾸며진다. 판매는 물론 티마에 따라 클래스,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여의도 IFC몰에서 8월까지 운영한다. 문의 02-3419-9593



그리브 기사 내용 장정
 <스타일 조선훈> 5월호 바젤월드 기사 'Novelty in Baselworld 2014' 내용 중 컬러 다이아몬드 드로 제작한 1백10여점에 달하는 희귀한 다이아몬드 그린 민트 그리브 할루시네이션 워치의 제품 가격을 5천만원대 단위로(한화 5백70여만) 상당으로 정잡니다. 문의 02-2256-6810

FASHION

LIFE STYLE

BEAUTY

뉴트로지나 FIFA 브라질 월드컵 공식 후원사
 선전 뉴트로지나가 FIFA 브라질 월드컵의 공식 후원사로 선정되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마음껏 응원 하라라는 슬로건 아래 공식 후원사로서의 국내외 응원 서포터 활동을 시작한다. 특히 이번 월드컵 시즌 뉴트로지나의 대표 제품으로 선정된 '올트라 쉬어 햇 스킨블록 바디미스트 SPF 50+ PA++++'는 뉴트로지나만의 독자적 기술로 뜨거운 태양은 물론, 염과 물까지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3중 차단 선 스프레이다. www.facebook.com/neutrogenakorea

아모레퍼미픽 안티에이징 컬러 컨트롤 쿠션
 아모레퍼미픽에서 안티에이징 컬러 컨트롤 쿠션을 새롭게 선보인다. 트리트먼트 컬러 컨트롤 쿠션 특유의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 표현에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 개선까지 3중 안티에이징 기능을 결합했다. 피부 인공의 피부 밀도 개선을 통해 굴곡 없이 매끄러운 피부를 만들어,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는 녹차 차등체가 피부 방어력을 강화한다.

비비안 웨스트우드 한정판 향수 세니앨리스
 비비안 웨스트우드 향수가 '세니앨리스' 향수를 한정 출시한다. 뜨거운 태양 아래 해변에서 태성을 즐기며 바나나 길의 도도한 관능미를 표현한 이 제품은 기존 비비안 웨스트우드 라인의 파우더리한 향과는 상반되는 상쾌한 향취가 특징이다. 이탈리아 옐로 만다린과 핑크 페퍼의 톤 노트로 시즈해 삼각 제스민의 밀들 노트로 이어지다가 샌달우드와 바닐라, 앰버로 마무리된다. 문의 080-363-5454

디올 어딕트 오 드 투왈렛
 디올에서 '어딕트 오 드 투왈렛'을 출시한다. 달콤한 프루티 플로럴 향에 인도 산달우드 에센스의 우디 향을 더해 관능적인 우디 플로럴 향수를 완성했다. 이 향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영화감독 하모니 코린(Harmony Korine)과 포토그래퍼 라이언 맥긴리(Ryan McGinley)가 어딕트 오 드 투왈렛의 눈부신 상상의 세계를 표현했다. 문의 02-3438-9631

